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현 경 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 및
음악교육 실태 조사

20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혜 수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 및
음악교육 실태 조사

현 경 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혜 수

인 준 서

이혜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북한의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과 세터민 인터뷰를 통하여 북한의 음악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통일교육에 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북한의 교육과정은 2012년 개편되었지만 아직 교육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개편 이전의 교육과정을 수록하였고 교과서도 북한자료센터에 소장된 2002년 출판된 1~5학년 음악교과서를 대상으로 외형분석과 내용분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외형분석은 판형과 지질, 활자, 삽화와 사진, 쪽수, 표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은 활동영역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북한 음악교과서의 기준에 따라 영역별로 가창·시창·감상·기악·기악과 노래·음악이론·창작 7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정치사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음악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가창·기악·시창·감상 영역에 나온 곡을 중심으로 가사와 곡의 주제를 분석하였다. 인터뷰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 북한에서 음악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의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형분석 결과, 5종 모두 동일한 판형을 가지고 있으나 지질, 활자의 크기, 인쇄상태가 불량하였다. 또한 삽화와 사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수록되어있는 삽화는 학습의 효과를 주는 시각적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둘째, 내용분석 결과, 활동영역중 가창과 시창이 61%로 가사중심의 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사·곡 내용은 주로 김부자 찬양, 조국찬양, 충성에 대한 내용이 72%를 차지하는 것을 보아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곡은 선율보다는 언어의 매개체가 되는 가창곡(가사)에 중요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창을 위한 시창교육도 체계적으로 학습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다른 영역은 본래의 각 활동

영역이 추구하는 목적보다는 정치사상교화의 기능적 목적을 갖고 학습되어 지도록 구성되어있다. 북한은 음악교육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창의성을 기르고 삶의 질을 높이며 음악을 애호하고 즐기는 태도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인터뷰 결과, 교육환경면에서는 무상의무교육이지만 수업료만 없을 뿐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개인이 구입해야하며 교육기자재 파손, 시설 낙후로 인해 악기나 음향시스템이 없어 시설 면에서는 열악한 조건이다. 음악수업은 주로 가창과 시청활동 위주로 이루어지며 수업내용은 김부자 찬양에 관한 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전문 예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악수업은 악기보급의 문제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소조활동, 과외활동을 통해 접하게 된다. 음악평가에 있어서는 악기의 유무에 따라 달라 타당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은 정규 수업시간에도 농촌활동에 동원되어 학습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학생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농촌일을 하거나 장마당에 나가 출석률이 많이 떨어진다. 졸업 후 진로는 생계선선에 뛰어드는 학생이 더 많아 대학진학률이 낮다.

이처럼 교과서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서는 음악과 관련된 모든 요소 즉, 교육환경, 학습내용, 학습목표 등 모든 것이 사상성을 가지고 주체사상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분석 결과로 남·북한 상호간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며, 양국 체제의 다름에 따른 이질성과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이라는 양면성을 인지하고 남북이 서로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탐구 하여야 한다.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각자의 전통을 인정하며 화합할 때 비로소 같은 음악적 뿌리로부터 남과 북의 다양한 민족음악유산이 탄생하고 계승 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3
3. 연구의 제한점	3
4. 선행연구 고찰	5
II. 이론적 배경	8
1. 북한의 교육	8
2. 북한 문예정책	20
3. 북한의 개량악기	25
III. 연구방법 및 절차	32
1. 교과서 분석	
가. 연구대상	32
나.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33
2. 인터뷰 분석	
가. 연구대상	35
나. 제작과정 및 연구절차	35
다. 연구도구	36

IV. 연구 결과 및 분석	37
1. 교과서 분석	37
2. 인터뷰 분석	68
V. 결론	76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북한의 의무교육 제도의 변화	11
<표 2> 남북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체제	15
<표 3> 북한의 중학교 교육과정	17
<표 4> 남북한 학기 시수 비교	18
<표 5> 북한음악교과서 분석 대상	32
<표 6> 인터뷰 연구대상	35
<표 7> 인터뷰 기준	36
<표 8>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구성	40
<표 9> 북한 고등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단원구성	41
<표 10> 전체 악곡의 영역별 비중	42
<표 11> 가창영역 분류 수록 횟수	47
<표 12> 연주형태에 따른 감상영역 분류	52
<표 13> 학년별 기악영역	55
<표 14> 학년별 기악과 노래 영역	57
<표 15> 학년별 음악이론 영역	58
<표 16> 학년별 이론단원 외 이론 영역	58
<표 17> 학년별 가사 내용 분석	67

그림 목 차

<그림 1> 북한의 1975~2012년 학제	12
<그림 2> 북한의 2012년 개편 이후 학제	13
<그림 3> 북한 가야금(교과서)	26
<그림 4> 북한 가야금(실사진)	26
<그림 5> 북한 소해금의 구조(교과서)	27
<그림 6> 북한 소해금(실사진)	27
<그림 7> 북한 옥류금(교과서)	28
<그림 8> 북한 옥류금(실사진)	28
<그림 9> 북한 저대의 종류(교과서)	29
<그림 10> 북한 저대(실사진)	29
<그림 11> 북한 새납(교과서)	30
<그림 12> 북한 새납(실사진)	30
<그림 13> 북한 단소의 생김새(교과서)	31
<그림 14> 북한 단소(실사진)	31
<그림 15> 북한 장구(교과서)	31
<그림 16>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1학년 표지	39
<그림 17>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3학년 표지	39
<그림 18>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3학년 제 9과	54
<그림 19>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4학년 p.24	60

악 보 목 차

<악보 1>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1학년 제 1과	44
<악보 2>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1학년 제 2과	48
<악보 3>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1학년 제 17과	49
<악보 4>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1학년 제 19과	50
<악보 5>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5학년 제 6과	51
<악보 6>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5학년 제 10과	56
<악보 7>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1학년 제 8과	61
<악보 8>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2학년 제 9과	62
<악보 9>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3학년 제 11과	63
<악보 10>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4학년 제 11과	64
<악보 11>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5학년 제 2과	6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남·북한은 역사적으로 볼 때 1945년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이후 지금까지 미·소 군정, 남·북한 단독정부수립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는 물론이고 교육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으로 양분되어왔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서로의 교육을 통해 그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통한 분단 극복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시급한 역사적·민족적 과제이며, 이것은 남·북한의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중시하여 사회주의에 맞는 혁명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세뇌교육을 해왔으며,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이데올로기로 두 나라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서로 다른 모습들로 이질감을 증가시켜왔고 이로 인해 통일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른 여러 분야에서의 남·북간의 동질성 구축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교육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보존적 기능으로 ‘교육은 문화유산·전통·가치관 등을 유지하고 전달하여 사회의 유형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전통·가치관을 알고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 음악교육은 동질성 회복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음악은 인간에게 미적 경험과 즐거움 뿐 아니라 창의력과 사고력 증진에도 기여하며 공동체의 가치와 문화를 전승하여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과

1) 최영표 외(1988).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 연구. 한국 교육개발원. p.8.

통합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음악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은 곧 음악교육의 본질이자 내용이 된다.²⁾ 이처럼 음악교육의 본질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음악교육의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북한의 음악은 음악정치³⁾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본래의 교육목적보다는 정치사상교화의 기능적 목적을 갖고 음악 외적 가치에 편중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볼 때 남한의 음악교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는 음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남·북한이 서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우리민족 성원으로서의 공통분모를 되찾아 동질성을 확대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과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 새터민 인터뷰를 통하여 북한의 음악교육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통일교육에 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교육과학기술부(2012).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제2011-316호.

3) 당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음악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북한의 예술선동을 위한 신조어.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북한의 음악교육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가. 북한음악교육에 대해 문헌연구를 한다.

- 1) 북한의 교육이념·정책 등 북한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조사한다.
- 2) 북한의 음악교육에 대해서 조사한다.

나. 문헌연구를 토대로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를 분석한다.

- 1) 외형적 특징이 어떠한지 분석한다.
- 2) 내용적 특징이 어떠한지 분석한다.
 - (가) 교과서 단원구성은 어떠한가?
 - (나) 영역별 특징은 어떠한가?

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새터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다.

3. 연구의 제한점

가. 최근에 각계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북한 자료센터의 개관으로 인해 북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으나 북한 사회 자체의 폐쇄성으로 인해 제한적인 자료와 주로 남한에서 발행된 단행본·논문·간행물·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사용하였다.

나.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북한의 음악교육의 범위는 학교음악교육만으로

제한되었다.

- 다. 북한의 교육과정은 2012년 개편되었지만 아직 교육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개편 이전의 교육과정을 수록하였고 교과서도 북한자료 센터에 소장된 2002년 출판된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 라. 새터민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가명을 사용하였고 인터뷰 역시 소수 인원으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4.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 앞서 북한 음악교육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배인교⁴⁾는 “북한 고등중학교 민요 교육의 음악적 고찰”에서 기존의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의 틀을 벗어나 북한의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민요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요의 양상과 북한의 민족음악 교육에서 민요 교육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결과적으로 전통 민요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고 개작해 신민요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민요 교육을 통해 조선민족제일주의의 강화를 존속시킨다 말한다.

윤명원⁵⁾은 “남·북한 음악용어의 비교”에서 북한의 언어정책을 바탕으로 북한의 언어의 변천사를 찾아보고, 이를 남한과 비교해 제시하였다. 이런 언어의 이질화 현상에 대해 서로의 음악정책을 이해하고 용어들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이방면에 노력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는데 있어 민족 간 동질감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박균열⁶⁾은 “북한의 학교 음악교육 변천”에서 북한의 신탁통치 기간과 직후 기간 동안 학교 음악교육의 변화를 살펴 북한음악교육이 사상주입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음악교과를 심미적 예술적 관점이 아닌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으로 신탁통치 구소련에 음악 유입에 의한 대표적인 문화변용의 형태로 북한음악교육의 실상에 대해 발표하였다.

정혜령⁷⁾은 “북한 음악교육의 분석적 고찰-고등학교 음악을 중심으로”에

4) 배인교(2012). “북한 고등중학교 민요 교육의 음악적 고찰”. **한국민요학**, 제35집, Vol.6 63~91.

5) 윤명원(2007). “남북한 음악용어의 비교”. **학생생활연구**, vol. No.5 pp.120~131.

6) 박균열(2010). “북한의 학교 음악교육 변천”. **통일전략**, 제 10권 제 3호, pp.145~180.

7) 정혜령(1995). **북한 음악교육의 분석적 고찰-고등학교 음악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

서 북한의 체제 및 시간배당, 주당 수업시간 등을 알아보았으며 북한 교과서에 소개되는 음악가들을 알아보며 남·북한의 용어와 개량악기를 비교하는 등 남북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봄으로써 통일을 대비하는 음악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김현주⁸⁾는 “북한음악관련 한국 석·박사학위 논문의 총람 및 내용분석”에서 1992년도에서 2002년까지 연구된 북한 음악 관련 석·박 37편을 비교분석하여 전체적인 북한 연구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도록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음악교육 9편, 교과서분석 22편, 기타 6편으로 교육제도, 교육과정, 실태, 방안으로 세분화해 분석하였고, 인민학교 고등중학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주제나 방법이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어 더 이상 같은 유사한 결론을 만드는 연구가 나오지 않아야 할 것임을 제언했다.

한희정⁹⁾은 “통일 대비 음악교육을 위한 북한음악의 이해”에서 남북한의 교육을 비교, 분석하고 통일 이후에 남북한 음악의 이질화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한 음악의 통합적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 민족공동체로서 융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정해돈¹⁰⁾은 “남·북한 중등음악교과서 비교연구”를 통해 남·북한 음악교과서의 가창·기악·창작·감상·전통음악의 5개영역으로 나누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음악용어의 특징을 분석하여 남북한 음악교육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상반된 이질화된 모습을 어떻게 극복해서 조화를 이루며 추구해야할 방향은 어떠한지 통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라 제언하였다.

윤금혜¹¹⁾는 “북한의 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 연구”를 통해 1996년 개정된

육대학원.

8) 김현주(2004). 북한음악관련 한국 석·박 학위 논문의 총람 및 내용분석.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9) 한희정(2002). 통일대비 음악교육을 위한 북한음악의 이해:민요와 개량악기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0) 정해돈(2001). 남북한 중등 음악교과서 비교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북한의 1~3학년 음악교과서를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시창 5개 영역으로 분류해 분석하고 그중 가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북한의 교육과 음악교과서 분석을 통해 실제 음악교육이 어떻게 학습되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음악교육과 차이점을 밝혀 통일 이후 음악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결과 많은 연구들이 음악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북한의 폐쇄정책으로 인하여 한정된 자료에 의존하다보니 북한 내 음악교육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북한의 교육상황과 음악교육 실태에 대해 좀 더 실증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11) 윤금혜(2005). 북한의 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 필요한 북한의 교육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의 교육

해방 후 북한은 구소련의 지원 하에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했다. 북한 교육은 초기 마르크스-레닌주의¹²⁾에 입각한 집단주의 교양과 사회주의 교육원리에 기초하여 성립되었다. 그 후 1950년대 주체사상을 제시해 이를 점차 발전시켜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정립하였다.

가. 교육목표¹³⁾

교육은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주요 수단의 하나로서 사회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광복 이후 사회주의 체제의 시작점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제도 수립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취학전 교육, 무상 의무교육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의 교육 제도는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대표 정책의 하나로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이러한 제도는 형식에 불과하며 무상의무교육은 수업료만 없을 뿐 교과서, 교복, 학용품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개인이 구입해야하며 교육기자재 파손, 시설낙후, 수업 질 저하 등과 같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2)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창시되고 레닌에 의해 계승·발전된 철학, 경제학, 정치학 등의 여러 이론의 통일적 체계로서, 그 전체성, 완결성, 일관성에 있어 '근대 유물론과 근대 과학적 사회주의를 노동운동의 이론과 방침으로' 제시하는 이론 체계.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노동 계급의 혁명적 당의 실천적 활동의 이론적 토대이고, 계급투쟁, 사회주의 혁명 및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 등에 있어서 행위의 지침으로 기여한다.

13) 통일부(2014). **북한 이해**. 통일교육원. pp.231~234 재인용.

이에 북한은 사회 전 분야의 사상성 이완 방지 등을 위해 정치사상 교육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목적은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 지식, 튼튼한 체력을 지닌 인재를 키우는 것”으로 교육법 제 1장 제3조에 명시되어있다.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는 ...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는 깊은 과학지식과 건강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¹⁴⁾

이처럼 북한이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투쟁하는 공산주의 인간형이자 혁명사상과 건강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 인간형이다. 북한 교육에서 추구하는 공산주의 인간형이 갖추어야할 요소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것은 혁명사상이다. 개인의 자아 발달보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구성원의 양성을 위해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김정일과 김정은 등 지도층에 복종하는 충직한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교육제도의 변천¹⁵⁾

북한 교육제도는 정권의 변화와 사회의 필요에 따른 인재양성을 위해 개편이 이루어져왔으며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확립시기와 주체적 교육 체계수립 두 시기로 나누어 그에 따른 변천을 살펴본다.

14) 김형찬(1977). **북한의 교육**. 을유문화사 p.482.

15) 통일부(2014). **상계서**. pp.236~238 재인용.

1)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확립 시기

광복이후 사회주의 정권 수립 초기의 북한교육은 학제개편을 통해 인민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으로 이어지는 단일한 학제로 개편되었다. 6·25 전쟁 이후 복구시기로 ‘일하며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라’는 구호 아래 학생들의 노력 동원을 대규모로 조직하며 4년제 초등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1958년부터는 중학교까지 7년 의무교육을 확대하여 이데올로기 교육의 강화를 위해 개편하였다.

1960년대 북한은 앞선 전쟁복구와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매진하며 한편으론 기술교육도 강조하였다. 따라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고등기술 전문학교를 창설하여 1인1기술 교육을 위주로 하는 교육체계를 수립하였다.

2) 주체적 교육 체계 수립

1970년대 주체사상이 북한의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아 교육에도 영향을 끼쳤다. 10년제 의무교육과 1년간 학교 전 의무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함에 따라 유치원 높은반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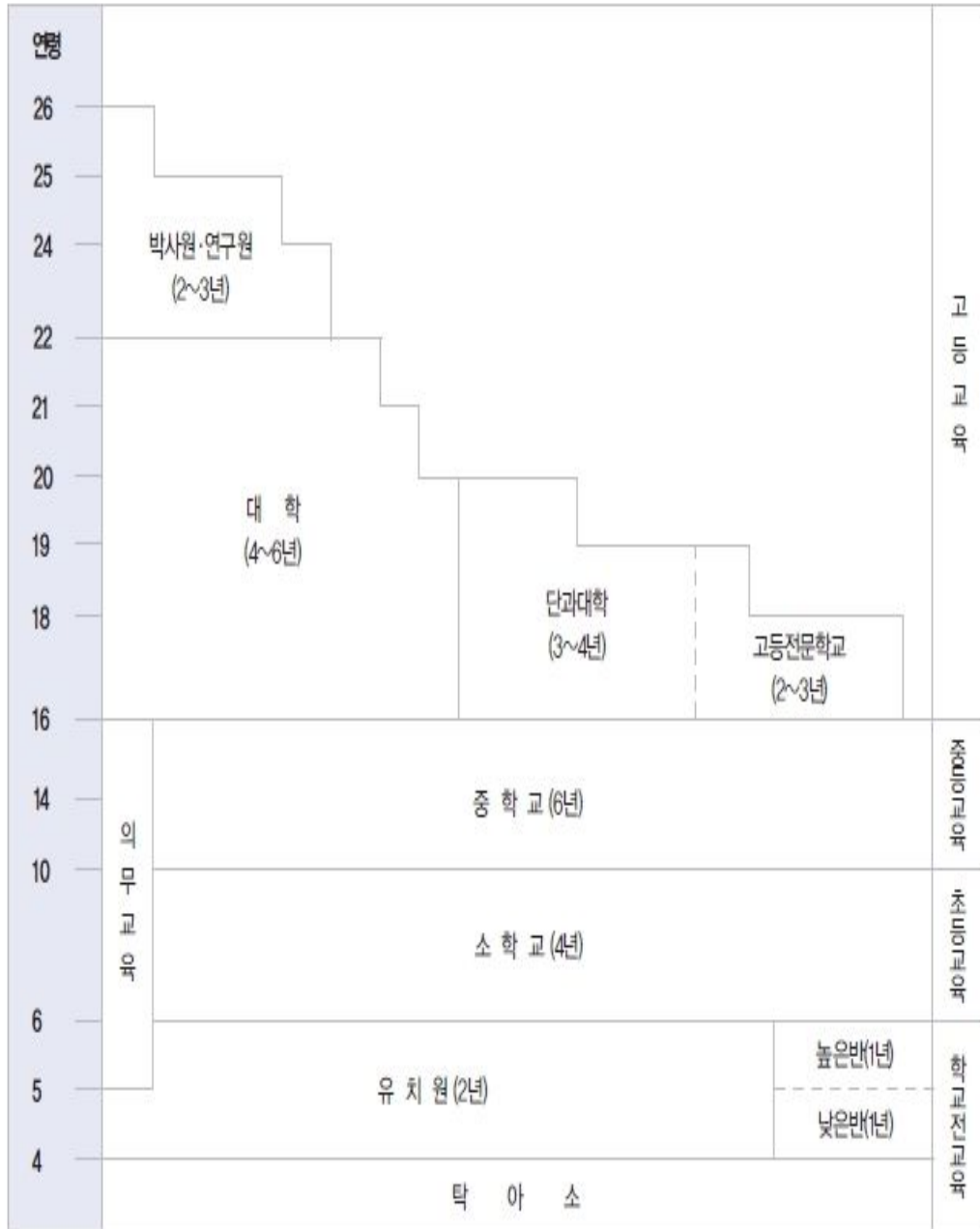
1980년대 중반에는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과학기술에 힘써 컴퓨터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2012년 12년제 의무교육을 채택하기 이전까지 실시되었고 이후, 소학교 5년, 중학교 6년을 3년제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로 분리하여 개정하였다. 이런 12년제 의무교육은 2013년부터 준비하여 2014년에 시작해 2~3년 안에 완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 북한 의무교육 제도의 변화

연도	의무교육의 내용
1950년	5년제 초등 의무교육 (6·25전쟁으로 중단)
1956년	4년제 초등 의무교육
1958년	7년제 중등 의무교육 (인민교육 4년+중학교 3년)
1967년	9년제 기술 의무교육 (인민교육 4년+중학교 5년)
1975~2012년	11년제 전반적 의무교육 (유치원 1년+소학교 4년+중학교 6년)
2013년~	12년제 전반적 의무교육 (유치원 1년+소학년 5년+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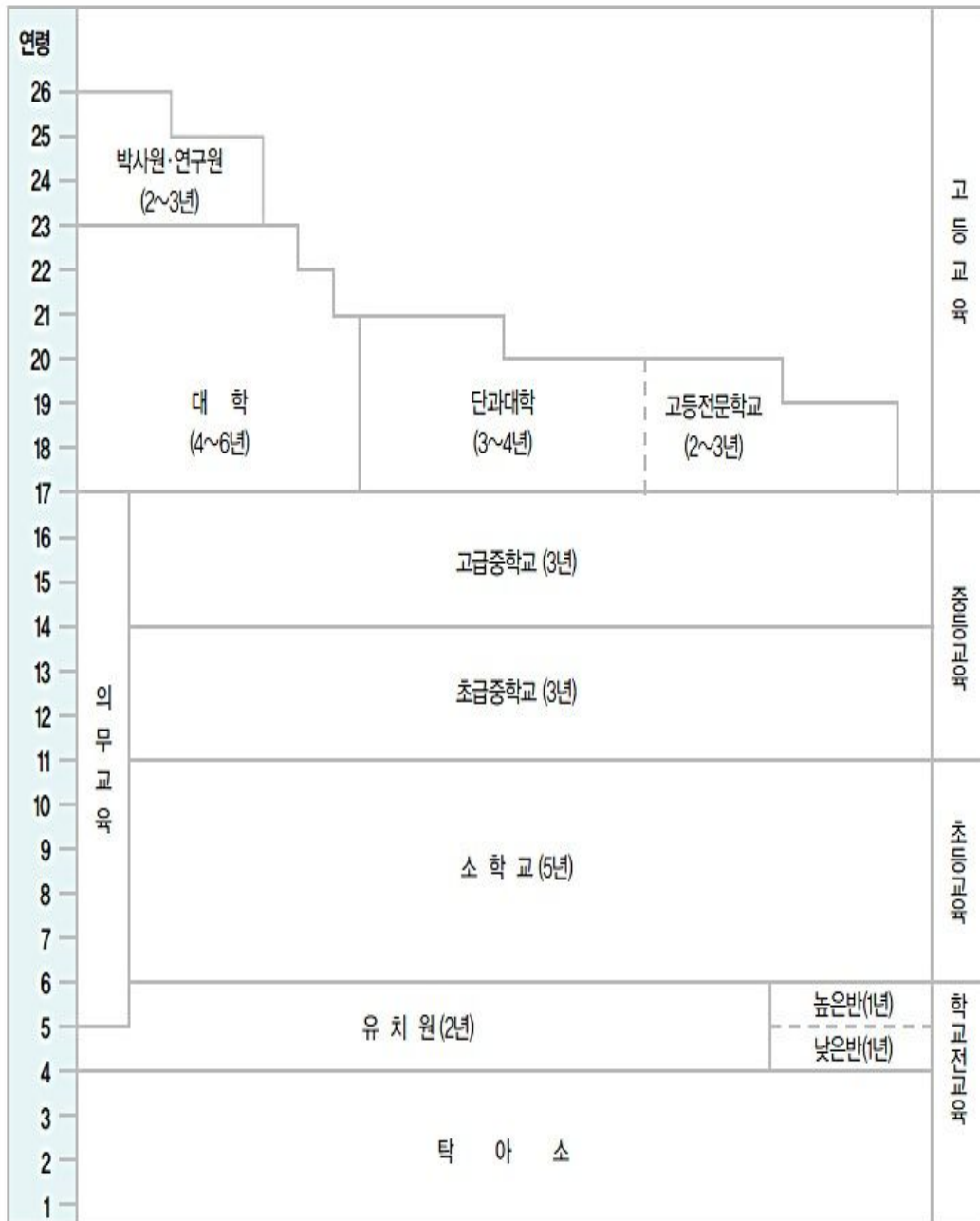
다. 학제구분

현재 북한의 학제는 <그림 2>와 같이 5-6-4(6)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소학교 5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으로 구성된다. 본래 <그림 1> 과 같이 4-6-4(6)년제로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해왔으나 김정은 집권 후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해 2013년부터 소학교는 5년, 중학교 6년 과정으로 중학교는 초급3년, 고급3년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학제로 개편되었다. 이처럼 북한의 학제는 남한의 학제와 다르다는걸 알 수 있다. 남한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8살인 반면 북한에서는 소학교(초등학교) 입학연령이 6살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북한의 초급·고급중학교(중고등학교) 연령시기는 11~17살인 반면, 남한의 중고등학교 시기는 14~19살로 나이연령이 다를 수 있다.



<그림 1 > 북한의 1975년~2012년 학제¹⁶⁾

16) 통일부(2006). 상계서. p.189.



<그림 2 > 북한의 2012년 개편 이후 학제¹⁷⁾

17) 통일부(2014). 상계서. p.239.

라. 교육과정

북한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용어가 남한과 조금 다르다. 북한의 교육법 제 4장인 ‘교육내용과 방법’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밝히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북한은 남한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말로 ‘교육강령’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여기에는 남한의 교과목 편제표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안’과 교육과정 각론에 해당하는 ‘교수요강’이 속해있다. 북한 교육과정은 남한에서처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제 몇 차’ 교육과정식으로 전반적인 개정·공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법에는 원칙만 천명해 놓고 실제의 학교교육에서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따라서 때로는 1년만에 새로운 교육과정안이 발표되기도 하며 수정의 범위도 새로운 과목을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혹은 시간수를 조정하는 것에 한정되어있다. 즉, 북한은 남한과 같이 교육과정 체계를 근본적·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식의 개정은 하지 않고 공식문서로 나와있지도 않기 때문에 북한의 교육과정상의 특징을 시기별로 분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¹⁸⁾ 따라서 교과목별 세부교육과정안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북한 교육의 변천은 1990년대 새로 저술된 「조선교육사」 전 6권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북한이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은 다음과 같은 시대 구분으로 나뉜다.

- ① 새 민주조선 건설시기 교육 (1945.8~1950.6)
- ② 조국해방전쟁시기 교육 (1950.6~1953.7)
- ③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과 사회주의 기초 건설시기교육 (1953.7~1960)
- ④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시기 교육 (1961~1970)

18) 북한연구학회(2006).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경인문화사. pp.253~254.

- ⑤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 구현시기 교육 (1970년대)
- ⑥ 온 사회의 주체사상과 요구시기 교육 (1980년대)

<표 2> 남북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체제¹⁹⁾

구분	남한	북한
문서의 종류	· 교육과정(초중고)	· 과정안(소학교, 중학교) · 교수요강
문서에 담겨있는 내용	·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육과정의 성격과 구성 편제, 시간배당, 편성운영 의 기본지침) · 교과와 특별활동 (각 교과별 성격, 목표, 내 용, 방법, 평가가 제시됨)	· 과정안 : 학과목 교수 조직 시의 유의점, 학업진 행 시의 유의점, 소학교 중학교 과정안 (학기구분, 교수진행계획서) · 교수요강 : 학과목의 교 수방법, 학과목의 장, 질, 향 목의 체계와 내용구성, 중 심개념, 법칙, 원리, 교수 제목별 시간배정
개발주기	5~10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발중심기관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가 개발한 시안을 교육부가 심의한 후 확정	국가교육위원회 보통교육 부에서 총괄
운영상의 특징	학교, 교사의 선택 폭이 넓음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없음.

<표 2>처럼 남한의 교육과정은 교육환경과 여건, 시대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한의 교육과정은 교육내용을 결정하는 주체가 다양하다. 국가가 중심이 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기준’이 있으며, 지역교육청이 중심되어 ‘지역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학교단위로 이루어지는 ‘학교수준의 교육과정’등 세가지 수준

19) 박찬석(2013). 북한교육연구. 한국학술정보(주), p.142.

의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교육과정편제는 예전 남한의 권위주의 시대처럼 국가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그렇기에 당 지도부의 입장에 따라 원칙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²⁰⁾ 북한의 교육과정은 사상적 일원화를 위한 정치 교화교육, 학생들이 노동계급을 이해하고 스스로 노동자 의식을 갖도록 할 뿐 아니라 학교와 생산 간의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동 생산현장 실습교육²¹⁾이 전교과목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1) 중등교육과정²²⁾

북한의 중등교육과정은 중학교 재학 6년 동안 모두 23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되어있다. 국가와 당이 교육의 전반을 관리·통제하는 북한의 교육에서 학교 및 학생에게는 교육 내용은 물론 교과목의 선택권이 없었으나 2001년 4월1일 새 학년도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지역별·시대별 특성에 맞는 선택 과목제가 중등교육에 도입되었다. 예컨대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관련교육, 어촌 지역에서는 어업관련 교육, 산간 지역에서는 임업관련교육, 경공업 공장 지역에서는 경공업 관련 교육을 집중시키는 방법이다. 선택과목제가 도입되면서 광업, 기계, 임업, 식료, 피복, 약전(弱電, 통신공학) 등 6종의 교과서를 폐내기도 하였다.²³⁾

20) 박찬석(2013). 상계서. p.142.

21) 안기성 외 (1998). 남북통일 이후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역할. 집문당. p.69.

22) 북한 교육성의 과정안(1996년 3월)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2012 학제 개편으로 중학교 과정이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되었으나 아직 교육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개편 이전의 자료를 수록하였다.

23) 통일부(2014). 전계서. p.246.

<표 3> 북한의 중학교 교육과정²⁴⁾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수					
		1	2	3	4	5	6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 원수님 혁명활동	1	1	1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				2	2	2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활동	1	1	1			
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				2	2	2
5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님 혁명력사				1		
6	사회주의 도덕	1	1	1	1	1	1
7	현행 당 정책				1 주	1 주	1 주
8	국어	5	5	4			
9	문학				4	3	2
10	한문	2	2	1	1	1	1
11	외국어	4	3	3	3	3	3
12	력사	1	1	2	2	2	2
13	지리	2	2	2	2	2	
14	수학	7	7	6	6	6	6
15	물리		2	3	4	4	4
16	화학			2	3	3	4
17	생물		2	2	2	3	3
18	체육	2	2	2	1	1	1
19	음악	1	1	1	1	1	1
20	미술	1	1	1			
21	제도				1	1	
22	컴퓨터				2	2	2
23	실습(남,녀)	1 주	1 주	1 주	1 주	1 주	1 주

<표 3>의 교육과정에 볼 수 있듯 북한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건 사상교육이다. 정치사상교육의 목표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배양이다. 이에 따라 소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 즉 ‘백두

24) 통일부(2014). 상계서. p.247.

산 3대장군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위대성에 관한 교양을 기본으로 한 교과목을 배운다. 또한 대학에서는 전공과 무관하게 주체철학, 혁명역사, 주체정치경제학 등을 필수로 이수해야한다.²⁵⁾ 경제난 이후에는 자본주의유입에 대한 경계로 반미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루어져있고, 외래문화 침투를 배격하는 교육강조, 군입대 장려가 교육을 통해 수단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외국어와 과학기술교육이 장려된다.

북한에는 남한의 농업, 공업, 상업학교와 같은 실업고등학교가 없다. 기술교육은 중등교육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술자 양성기관이나 대학에서 이루어진다.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체능 교육은 5~6세 때 재능을 지닌 학생을 조기 선발·별도로 이루어진다. 북한의 학기제는 <표 4>와 같이 남·북한 모두 2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기시작 시기가 남한은 3월, 북한은 4월 각기 다르다.

<표 4> 남북한 학기 시수 비교²⁶⁾

내용	남한	북한
학기	1) 학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기 : 3월1일 ~ 8월31일 2학기 : 9월1일 ~ 2월 28일 여름방학 : 7월중순~8월중순 겨울방학 : 12월말 ~2월 -대학 1학기 : 3월1일~6월말 2학기 : 8월말부터 12월말	1)학기 -소학교, 중학교 1학기 : 4월1일 ~ 7월31일 2학기: 9월1일 ~ 3월 31일 여름방학 : 8월 겨울방학 : 1~2월 방학기단은 2달여됨 -대학 1학기 : 9월1일 ~ 12월31일 2학기 : 2월1일 ~ 7월11일
연간수업일수	-초등학교 32주 : 상반기 16주 하반기 16주 -중, 고등학교 35주	-소학교 33주 : 상반기 17주 하반기 16주 -중학교 34주

25) 통일부(2014). 상계서. p.248.

26) 박찬석(2013). 전계서. p.149.

	: 상반기 17주 하반기 18주 - 대학 35주 : 상반기 17주 하반기 18주	: 상반기 16주 하반기 18주 - 대학 35주 : 상반기 17주 하반기 18주
학급구성인원	-초등학교 : 30명 내외 -중,고등학교 : 30~40명 내외 -대학 : 30~40명내외	-소학교 및 중학교 : 60명내외 -고등 전문학교 : 50명 내외 -대학 : 30명 내외

2. 북한 문예정책²⁷⁾

북한의 문학예술은 문학을 비롯한 음악, 미술, 공연예술 등 모든 예술 장르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문학예술을 ‘근로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화하는 수단’이자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는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문예정책은 예술성보다 당국이 지향하는 이념 전달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런 문학예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첫째,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 확보 및 사회주의 건설이다. 1990년대 급변하는 시기에 <사회주의 지키세>,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등 과 같이 주민들을 사상성으로 결속시키고 사회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다.

둘째, 지도자(수령)에 대한 정당성과 충성심 확보이다. 1960년대 김일성 집권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 이른바 5대 혁명가극²⁸⁾<피바다>, <당의 참된 딸>, <꽃 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가 만들어 지기도하였다.

셋째, 북한에 의한 통일 정당성 확보이다. 북한 주도 통일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남한의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미국, 일본의 병폐를 집중 부각시켜왔다. 1980년대 김정일 집권시기에 우상화 작업이 추진되며 <나는 첫 세대다>, <받으시라 인민의 환호성을> 등 권력 승계를 찬양하는 작품들이 만들어진다. 이처럼 북한의 문예정책은 선전선동에 일차 목적을 두고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건설’을 목표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사

27) 통일부(2014). 전개서. pp.256~258. 재인용.

28) 북한의 혁명가극이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기초하여 혁명적인 주제를 내용으로 독창적인 주제표현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가극을 일컫는 것으로서, 김일성이 지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직접 각본을 썼다는 연극들을 1960년대 말부터 김정일의 지도로 다시 가극으로 각색한 작품을 이르는 말이다.

회주의 혁명과 건설 과업에 기여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가. 북한의 음악

음악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음악예술의 미적 의미를 느끼고, 감득하고,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미적 감수성을 계발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²⁹⁾ 이처럼 음악적 감수성을 개발함으로써 음악의 가치를 느끼고 삶속에서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음악교육은 순수한 음악이 예술적 아름다움이나 인간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은 배제되고 다른 교육의 이념과 마찬가지로 음악을 통하여 그들의 정치적 이념을 확고히 다지고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기능(機能)음악의 성격을 띠고 있다.³⁰⁾ 이에 따라 북한의 음악은 서사음악과 성악음악, 사실음악과 민속음악, 단순한 화성음악 등이 대부분이다. 북한은 우리와 달리 음악을 대중음악과 순수음악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노래집의 절반정도는 소련민요와 중국풍의 국민 가요식 민요조 선율을 띠고 있고, 화음과 리듬보다는 가사와 멜로디에 치중하고 있다. 화성은 단조로워서 일반 주민들이 쉽게 따라 배울 수 있고 변화가 없으며, 창법에서는 비성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³¹⁾

1) 주체음악

북한의 음악을 이해하는데 ‘주체’라는 조건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주체’라는 조건은 음악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학·영화·체육 등 북한

29) 민경훈 외 (2013). **음악교육학** 총론. 학지사. p.81.

30) 권영민(1990).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p.417.

31) 통일부(2014). **전개서**. p.263.

사회 전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주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에서 주로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³²⁾

이처럼 주체는 자주성과 창조성의 구현을 의미하며 이것이 오늘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주체음악이다. 이는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야하며 다른 나라 음악의 성과와 경험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북한 주민의 감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³³⁾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음악이란 주체사상에 기초한 음악이며 음악의 본성, 사명, 내용, 형식 등의 문제를 모두 해명하며 음악 예술에 대한 관점과 입장정립을 통해 북한식 음악을 건설하는 지도적 이론, 실천의 원칙을 포괄하는 총체적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음악만이 주체시대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체현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위업을 실현하며 주체시대에 상응해서 그 요구와 사명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주체음악은 북한인들에게 이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³⁴⁾

2) 사회주의 음악

북한의 음악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 강조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음악이다. 이것은 북한뿐 아니라 정도와 전통에 따른 차이는 있

32) 한상우(1989). **북한음악의 실상과 허상**. p.14.

33) 한상우(1989). **상계서**. pp.14~15.

34) 이현주(2006). **북한음악과 주체철학**. 민속원. pp.63~65.

지만 모든 공산주의·사회주의 체제가 지향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사회주의 체제 음악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원칙 구현이라는 목표에 충실해야 함을 말한다. 따라서 작품의 소개는 사회주의 우월성을 묘사, 공산주의에 대한 긍정적인면 강조, 자본주의 체제 비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³⁵⁾ 사회주의에서는 음악을 통해 지배계급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중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구현을 목표로 사회발전과 현실개혁,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음악을 사용하였다.³⁶⁾

3) 민족음악

북한의 민족음악이란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을 결합하여 민족의 생활감정과 고유한 정서적 특질을 반영한 음악³⁷⁾이며 북한의 음악예술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음악이다. 민족음악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은 오랜 세월동안 노동과 생활에 불려지면서 다듬어진 민요로서 전통적 창법이 아닌 개량창법에 의해 부르며 반주로 개량된 민족악기와 양악기를 혼합한 합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김일성 강령적 교시³⁸⁾에 따른 결과이다.

과거의 모든 민요를 그대로 부르는 것이 민족문화의 계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 민요, 음악, 무용 등 각 분야에서 우리민족에게 고유한 우수한 특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새 생활이 요구하는 새로운 리듬, 새로운 선율, 새로운 율동을 창조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이 가지고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형식에 새로운 내용을 담을 줄 알아야 합니다.³⁹⁾

35) 한상우(1989). 전계서. pp.16~17.

36) 박고운(2013). 북한 음악교과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p.22.

37) 한상우(1989). 전계서. p.124.

38) 김광섭(1996). **동일을 대비한 북한 바로 알기**. 미래문화사. pp.132~133.

39)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직속 당력사연구소(1971). **김일성저작선집4**. 조선로동당출판사. pp.142~157.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유일 통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북한의 민족음악은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을 골격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서 민족적 형식이라는 것은 서양음악이나 중국음악 등의 양식적 형식을 바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형성되어 온 민요 등의 전통음악 형식을 가리킨다. 그러기에 북한의 민족음악은 민요가 중심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⁴⁰⁾ 끝으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⁴¹⁾에서 북한에서의 예능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일반 교육단계에서 예능교육을 잘하여야 한다.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들에서 예능과목의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문화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예술적 기량과 풍부한 미학적 정서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⁴²⁾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북한 음악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립할 수 있다. 북한의 음악교육은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 민족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학생들이 음악을 표현하고, 감상, 창작활동 등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과 지식을 습득하고,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기량과 풍부한 미학적 정서를 가져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혁명가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감정을 음악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창의성을 기르고 삶의 질을 높이며 음악을 애호하고 즐기는 태도를 갖지 못하므로 남한의 음악교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40) 노동은.(1996). **음악상자**. 웅진출판사. p.225.

41)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의 공식적 교육강령으로 총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내용·방법·제도, 그리고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및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등이 그것이다. 북한은 교육테제 발표일인 9월 5일을 '교육절'로 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교육강령에 따른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인재 양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42) 박명서(2001). **통일시대의 북한학 강의**. 들배계. p.325.

3. 북한의 개량악기

북한의 민족악기 개량은 전통악기의 음계·음역과 음량·음색 그리고 형태 등에 적지 않은 제한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

앞서 말한 주체사상은 북한에서는 모든 것의 기반이 되고 있는데 음악분야역시 예외는 아니다. 음악분야에서의 주체사상은 주체음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체음악은 주체시대의 요구와 사명에 이바지하며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본질을 가장 정확히 드러내고 주체시대의 위엄에 충실히 따를 수 있는 음악이어야한다는 것이다.⁴³⁾

이런 주체사상에 입각해 민족 악기의 고유특성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되살리면서 전통악기의 제한성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악기개량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⁴⁴⁾ 따라서 민족악기와 서양악기를 배합하려면 양악과 양악기는 철저히 조선음악에 복종되어야한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이미 토착화된 양악과 양악기를 지금에와 탓하거나 버릴 필요가 없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⁵⁾ 결과적으로 민족악기 고유음색을 보전하면서 형태, 모양, 재질에서 과학기술의 요구에 맞게 고칠 것을 고치고 새롭게 도입할 것은 도입하여 음색도 더 맑고, 음량도 크게 개량하였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개량악기들의 결과를 보아 음량 및 음색들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주장한 주체적 악기개량 논리와 달리 서양악기와의 어울림을 위해 12평균율 조율법으로 모두 바꾸었고, 외형에 있어서도 서양관악기 형태와 흡사하게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는 서양악기가 민속 악기에 복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3) 김정일(1991). **음악예술론**. 조선로동당출판사. pp.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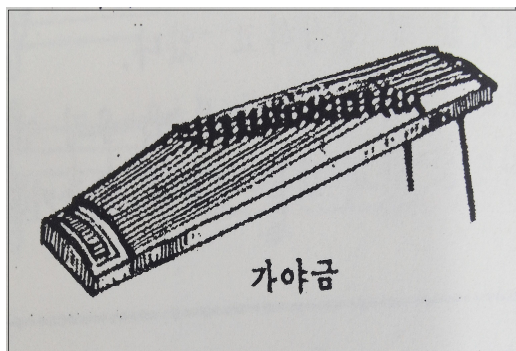
44) 남영일(1991). **민족음악의 계승발전**. 문예출판사. p.22.

45) 권오성(2001). **북한음악의 이모저모**. 민속원. p.257.

가. 민족현악기

1) 가야금

북한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기전 1590년대까지는 재래가야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1940년대에 가현금(13줄 철선), 조금(16현 철선)이 제작되었으나 실용화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3현, 15현, 17현, 19현, 21현이 만들어졌고 그중 21현 가야금이 대중화되어있어 21현 가야금을 일반적으로 ‘가야금’으로 부르며 7음 음계로 조율된다. 연주법은 크게 소리내는 주법, 잇기와 끊기, 장식음, 농현, 끌소리 5가지로 나뉘며 이는 남한과 흡사하다.



<그림 3 > 북한 가야금(교과서)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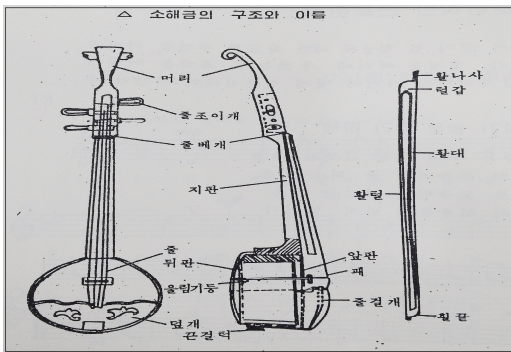
<그림 4> 북한 가야금(실사진) 47)

46) 김미빈 외(2002). 음악(고등중학교 제 1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p.16.

47) 국립국악원.(<http://www.gugak.go.kr>).

2) 해금

북한에서는 현재 전통해금을 사용하지 않고 개량한 소해금, 중해금, 대해금⁴⁸⁾을 사용하고 있다. 두 줄의 해금을 네 줄로 늘리고 활을 줄에서 개방시켰으며 짙은 판은 새롭게 설치하였다.⁴⁹⁾ 악기형태는 서양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처럼 개조되었으며 조율도 서양의 현악기군과 같다.



<그림 5> 북한 소해금의 구조(교과서)⁵⁰⁾ <그림 6> 북한 소해금(실사진) ⁵¹⁾

3) 옥류금

북한에서 1970년대에 들어와 혁명가극의 출현과 함께 관현악단은 보다 폭 넓고 다양한 연주기능을 수행하는 악기들이 요구된다.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창안된 것이 옥류금이다. 옥류금은 지탄악기중의 하나인 와공후가 본래의 연주기능 만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연주를 할 수 없는 제한성을 보완하려 와공후를 가야금처럼 넓혀놓고 연주 할 수 있도록 개량하였다. 33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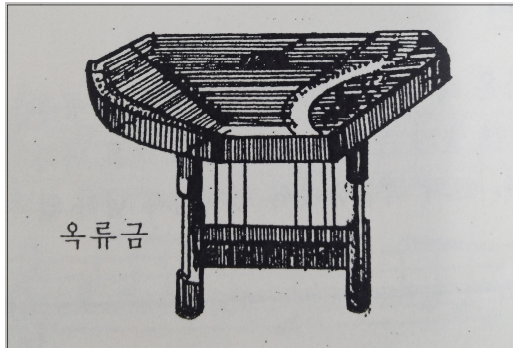
48) 소해금, 중해금, 대해금 이를 통틀어 해금속악기라 한다.

49) 박형섭(1994). *조선민족악기*. 문예출판사. p.252.

50) 박동식 외(2002). *음악(고등중학교 제 5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p.36.

51) 국립국악원.(<http://www.gugak.go.kr>).

특수 나일론 줄에 간단한 진조장치와 페달장치가 부착되어있다.



<그림 7> 북한 옥류금(교과서)⁵²⁾



<그림 8> 북한 옥류금(실사진) ⁵³⁾

나. 민족관악기

1) 저대

북한에서는 대금이라는 말 대신 대함, 저대로 불리우고 있다. 고음저대, 중음저대, 저대(저대속악기)로 개량하여 사용하고 있다. 취구의 모양과 입술대는 것 등은 그대로 보존하고 박달나무나 자단과 같은 굳은 나무를 가공해 내경을 고르게 파고 음공들을 평균율의 치수에 따라 설치한다. 따라서 12반음계로 어떤 음악이나 전조 연주가 가능하다. 또한 악기에 연결관을 만들어 음정조절도 할 수 있고 손가락이 편리하게 누르개를 설치하였다.

52) 박동식 외(2002). 전계서. p.8.

53) 국립국악원.(<http://www.gugak.go.kr>).



<그림 9> 북한 저대의 종류(교과서)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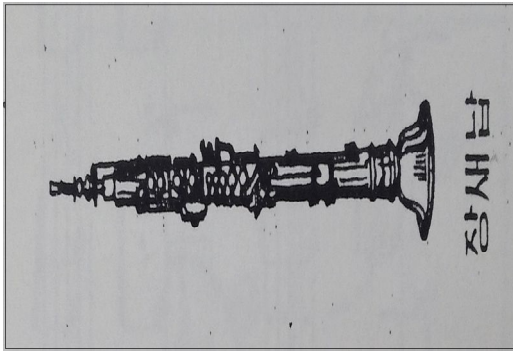
<그림 10> 북한 저대(실사진)⁵⁵⁾

2) 새납

새납은 세로 내려 부는 리드가 있는 목관악기로서 긴 원추형의 나무관에 소리구멍들이 뚫려있고 밑 부분에는 금속재로 만든 나팔이 있다. 이는 강한 음색과 풍부한 음량을 가지고 있어 실내악보다 야외에서 연주하는 악기로 전해지고 있다. 북에서 사용하는 새납은 음역이 좁아 여러 조성으로 전조가 불가능하고 작은 소리 연주가 불가능하기에 나팔의 크기와 질, 형태가 현대적 미감에 맞게 새납과 장새납으로 개량하게 되었다. 이는 밝고 화려한 음색뿐 아니라 약한 음색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54) 김미빈 외(2002). 전제서. p.39.

55) 국립국악원.(<http://www.gugak.go.kr>).



<그림 11> 북한 새남(교과서)⁵⁶⁾



<그림 12> 북한 새남(실사진)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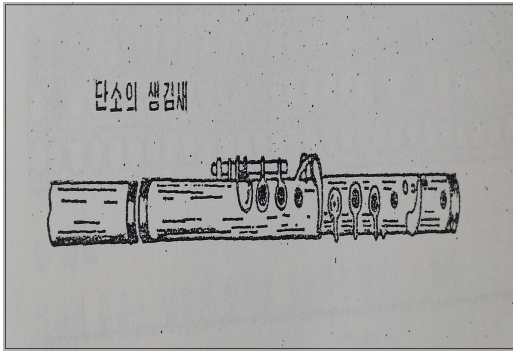
3) 단소

전통적인 단소는 소리세기가 약하고 자유롭게 조바꿈을 할 수가 없는 제약성을 가지고 있어 현재 단소, 고음단소로 개량되어 사용하고 있다. 이 개량된 악기는 5음음계가 아니라 12반음음계로 조율되어 조바꿈이 가능하여 연주법에서도 농음, 미분음, 끌소리 등 섬세한 민요적 굴림 기교들은 물론 꿩기의 다양한 방법들과 굴림소리 등 현대적인 주법들이 도입되었다. 또한 악기재료는 자연재료대신 가공한 나무를 가지고 규격화하였으며 연결관을 만들어 손가락쓰기 편히 소리구멍을 추가하고 누르개를 설치 하였을뿐 아니라 고음단소의 개량으로 풍부한 소리를 내기에 민족적인 색채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한다.⁵⁸⁾

56) 김미빈 외(2002). 전계서. p.39.

57) 국립국악원.(<http://www.gugak.go.kr>).

58) 박형섭(1994). 전계서. p.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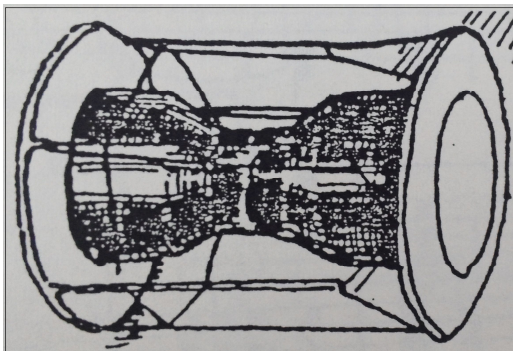


<그림 13> 북한 단소의 생김새(교과서)⁵⁹⁾ <그림 14> 북한 단소(실사진) ⁶⁰⁾

다. 민속타악기

1) 장구

현재 북에서는 장구의 기본 형태를 사용하기도 하는 반면에 약간씩 개량해서 사용하고 있다. 장구의 조임띠, 장고줄, 고리를 없애고 조임 나사 장치로 대신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장고가 이동은 용이하나 고정이 힘들다는 점을 개량해 틀에 묶어 고정시켜 사용하고 있다.



<그림 15> 북한 장구(교과서)⁶¹⁾

59) 송광철 외(2002). 음악(고등중학교 제 3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p.21.

60) 국립국악원.(<http://www.gugak.go.kr>).

61) 조태봉 외(2002). 음악(고등중학교 제 2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p.8.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북한의 음악교육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하고자하는 연구이다.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으로 문헌연구와 교과서분석만으로는 음악교육의 실태를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어 좀 더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연구가 필요해 인터뷰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음악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다.

1. 교과서 분석

가.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2년에 출판된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1~5학년 을 대상으로 한다. 교과서 5종의 출판사 및 저자는 <표 5> 와 같다.

<표 5> 북한음악교과서 분석 대상

학년	교과서집필	출판사	출판년도
1	김미빈, 김승길, 조태봉, 송광철	교육도서출판사	2002
2	조태봉, 송광철, 김영심, 김미빈	”	”
3	송광철, 김미빈, 김군일, 조태봉	”	”
4	김종균, 배명진, 박동식, 정인갑	”	”
5	박동식, 김종호, 김종균, 정인갑	”	”

나. 연구절차 및 분석 기준

연구를 위해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북한자료센터에서 북한음악교과서를 대출하였다. 그 외 북한의 이해를 위해 관련 문헌과 기사 등을 통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이해하고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교과서 분석기준은 외형과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외형분석

북한 음악교과서의 외적체제를 판형과 지질, 활자, 삽화와 사진, 쪽수, 표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 내용분석

북한 음악교과서는 단원구성, 제목에서 활동영역이 명확히 제시되어있다. 따라서 내용분석기준을 활동영역별로 나누어 가창·시창·감상·기악·기악과노래·음악이론·창작 7개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정치사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음악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가창·기악·시창·감상 영역에 나온 곡을 중심으로 가사와 곡의 주제를 분석하였다.

가창영역은 교과서에 제시된 분류기준으로 송가, 혁명가요, 행진가요, 서정가요, 당·정책 해설가요, 민요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시창영역은 북한의 시창곡에 대부분 가사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가창영역과 다르지 않지만 전체 영역중 시창의 비중이 가장 높아 북한음악교과서의 특징이라 보고 영역을 따로 분류하였다.

감상영역은 연주형태에 따라 대분류로 가창, 기악, 가창&기악으로 분류하

고 이에 따라 소분류로 중창, 합창, 독주, 중주, 관현악, 협주곡, 경음악, 관현악과합창, 독병창으로 분류하였다.

기악영역은 학년별로 한단원씩 제시되어있어 기악학습의 내용, 그 외 부연설명으로 분류하였다.

기악과 노래 영역은 교과서마다 ‘기악과노래’ 라고 명시되어있어서 시창영역과 마찬가지로 교과서의 특징이라 보고 분류의 한 영역으로 보았다.

음악이론 영역은 이론단원과 이론단원 외 이론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창작영역은 교과서 단원에 창작이라 제시되어있지 않고 시창영역안에 제시되어있다. 이를 따로 분류해 학년별로 분석하였다.

가사·곡 내용분석은 크게 백두산 3대장군, 당·사회주의 찬양, 충성심·적개심 고취, 통일, 기타 5개로 분류하였다. 감상곡에 가사없는 곡이라도 작곡가의 의도를 포함시켜 분류하였고 기타영역으로는 정치사상 내용과는 무관한 영역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2. 인터뷰

가.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북한 음악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북한에서 음악교육을 받아본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과정은 지인의 소개로 섭외하였고 전화와 만남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표 6> 과 같다.

<표 6> 인터뷰 연구대상

대상	성별	나이	남한 정착기간	북한에서 음악교육 받아본 유무	남한에서 음악교육 받아본 유무	출신
A씨	여	20대	4년	유 (고등학교졸업)	유(개인레슨)	함경북도
B씨	여	20대	6년	유 (예술중학교졸업)	유(예고, 예대)	양강도
C씨	여	20대	5년	유(고등학교졸업)	무	함경남도

나. 제작과정 및 연구절차

새터민을 대상으로 인터뷰지를 제작하였다. 문헌연구와 교과서분석을 통해 북한의 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현희⁶²⁾, 정혜경⁶³⁾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인터뷰지를 작성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교육환경, 내용, 평

62) 나현희(2010). 새터민 청소년의 음악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63) 정혜경(2009). 북한 음악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가, 활동, 기타생활 등 세밀히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지도교수에게 여러번 피드백을 받고 중간중간 인터뷰대상자 A씨에게 몇차례 피드백을 받아 여러번의 수정을 거쳐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인터뷰지 제작을 완성하였다. 모든 인터뷰 대상자에게는 본 연구자가 대출받은 북한 음악교과서를 보여주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A씨는 2015년 9월 2일에 만나 약 2시간 가량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B씨는 9월 19일에 만나 대략 1시간 30분가량 이루어졌다. C씨는 직접적인 만남이 어려워 전화상으로 10월 12일에 1시간여정도 전화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인터뷰의 모든 내용은 녹음을 통해 차후 분석하였다.

다.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문헌연구와 교과서분석을 통해 북한의 음악교육에 대한 기초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인터뷰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부록 2>에 나타내었다.

<표 7> 인터뷰 기준표

구분	인터뷰 세부문항
기초사항	나이, 출생지, 정착기간, 음악교육유무
학교전반에 관한 사항	학교규모, 정원, 시스템, 교복착용, 포상제도 등
교육환경 및 시설	음악실, 악기, 음향시스템
음악 교사	교사의 전공, 교권, 학생들 분위기
수업교재 및 내용	교과서, 수업내용, 활동
평가	숙제, 평가
정규수업 외 음악활동	발표회, 소조활동, 과외활동
진로	대학, 취업
그 외 학교생활	외국어, 평양과 지방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 교과서 분석

교과서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학습 자료이며 학습 방법의 지침이 되는 도서라고 할 수 있다.⁶⁴⁾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북한 고등중학교 1~5학년 음악교과서를 외형과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북한 음악교육에 대해 알아본다.

가. 교과서 외형분석

북한 음악교과서의 외적 체제를 판형과 지질, 활자, 삽화와 사진, 쪽수, 표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판형과 지질

북한 음악교과서는 전 학년 180mm×250mm의 판형으로 일정하게 제작되었다. 교과서의 지질은 교과서의 활자, 색도, 인쇄 등의 효과를 결정하고 교과서의 무게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⁶⁵⁾ 교과서 용지는 오사리⁶⁶⁾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한에서 60년대에 사용하던 갱지보다도 지질이 훨씬 더 낫다.

64) 권영희(2002). 남한과 북한의 교과서 비교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p.6.

65) 서현진(2005).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음악교과서의 통합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p.25.

66) 옥수수의 껍질로 만든 종이로 표면이 거칠어서 인쇄, 채분, 독서의 적극성이 떨어진다.

2) 활자

교과서 활자의 크기는 판독의 속도를 결정하고 책의 부피와 경제적 부담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북한 교과서에는 여백이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 빼곡히 활자가 들어가 있다. 활체는 신명조체로 이루어져있으며 한정된 페이지에 많은 양을 담다보니 텍스트를 읽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어 흥미를 자극하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기보다는 한눈에 요점을 파악할 수 없어 학습에 방해요소로 작용된다. 특이한 것은 교과서 내용에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은 매번 큰 활자로 굵게 표기되어있다. 이것은 교과 내용에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가 인용된 것으로 북한 교과서에 특정 교육의 내용을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⁶⁷⁾ 활자의 크기에 이어 인쇄 상태 역시 남한은 다양한 색상으로 선명하게 인쇄되는데 반해 북한은 등사잉크와 같은 저질의 잉크를 사용하여 흑백이며, 낙후된 인쇄 기술 및 잉크의 부족으로 잉크의 농도가 흐려서 글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⁶⁸⁾

3) 삽화와 사진

삽화와 사진은 내용을 보완하는 기능 외에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학습 내용이 되는 시각자료이다. 남한의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나 사진은 대부분 학습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내용을 설명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북한의 교과서에는 결표지를 제외하고 악기그림만 있을뿐 이해를 돕는 사진이나 삽화는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한정된 지면에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삽화를 수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67) 한만길(1997). *동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p.367.

68) 한만길(1997). *상계서*. p.309.

4) 쪽수

교과서의 쪽수는 내적요인으로는 학습내용과 관련 있고, 외적요인으로는 교과서의 판형과 지질, 활자 사진 및 삽화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북한 음악교과서의 학년별 쪽수 구성은 1학년 48쪽, 2학년 53쪽, 3학년 52쪽, 4학년 48쪽, 5학년 48쪽으로 되어있다.

5) 표지

교과서 표지는 교과서의 내용을 상징적·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시대 상황과 교육 변화에 따라 교과서가 개정 될 때마다 표지그림은 변한다.⁶⁹⁾ 북한의 음악교과서 겉표지는 컬러로 되어있으며 각 학년에 배우게 될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그림 16>, <그림 17>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그림 16>⁷⁰⁾1학년 음악교과서 겉표지 <그림 17>⁷¹⁾3학년 음악교과서 겉표지

69) 서현진(2005). 전계서. p.28.

70) 김미빈 외(2002). 전계서.

71) 조태봉 외(2002). 전계서.

나. 교과서 내용분석

1).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특징

북한의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구성은 <표 8>에 나타난 것과 같이 1~2학년은 20과, 3~4학년은 19과, 5학년은 18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 보충교재가 2~6곡이 수록되어있다. 또한 북한의 주체사상의 수단이 되는 교육을 통제, 지배하기 위해 국가 내 출판사는 교육도서출판사 한 곳 뿐이다.

<표 8>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구성

학년	수록 (과)	보충 교재	교과서집필	출판사	출판년도
1	20	5	김미빈, 김승길 조태봉, 송광철	교육도서출판사	2002
2	20	6	조태봉, 송광철 김영심, 김미빈	"	"
3	19	4	송광철, 김미빈 김군일, 조태봉	"	"
4	19	2	김종균, 배명진 박동식, 정인갑	"	"
5	18	4	박동식, 김종호 김종균, 정인갑	"	"

2) 교과서 단원 구성

북한의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는 아래의 <표 9>와 같이 《도》 대조시창⁷²⁾(1,2), ‘가야금독주 《초소의 봄》 감상’ 이처럼 단원명에서 감상·가창·시창·기악·감상·이론 등의 영역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시창영역 같은 경우 1,2학년은 《도》 대조시창, 3학년은 《썰》 대조시창과 《미》 소조시창이 제시되어 일회성이 아닌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북한의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의 구성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져있으며 그 중 1학년의 단원구성은 <표 9>와 같다.

<표 9> 고등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단원구성⁷³⁾

과	단원명
제1과	김일성 장군의 노래
제2과	《도》 대조시창(1,2)
제3과	김정일 장군의 노래
제4과	음렬과 기본계단, 전음과 반음, 변음기호, 오선과 음고 기호
제5과	녀성중창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감상
제6과	《도》 대조시창 (3,4)
제7과	소년애국가
제8과	《도》 대조시창(5,6)
제9과	가야금
제10과	《도》 대조시창(7,8)
제11과	대동강
제12과	가야금독주 《 초소의 봄》 감상
제13과	《도》 대조시창(9,10)
제14과	소리표와 쉼표, 박자와 리듬
제15과	《도》 대조시창(11,12)
제16과	나의 조국 어머니 품아
제17과	《도》 대조시창(13,14)

72) 북한의 도대조시창은 C장조에 해당하는 말이다. 반대로 미소조시창은 e단조를 뜻한다. 본 장에서는 북한음악교과서의 분석에 관한 연구이므로 북한식 용어 그대로 사용하였다.

73) 김미빈 외(2002). 전개서.

제18과	목관3중주 《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 감상
제19과	《도》 대조시창(15,16)
제20과	김정일 원수님 계시여 우리도 있어요
보충교재	자장가
	하늘높이 날리는 로동당기발
	언제나 함께 계시요
	장신의 피꼴새
	그 말씀 안고자랴요

3) 영역별 분석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를 영역별로 분류하면 가창·시창·감상·기악·기악과 노래·음악이론 6개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표 10>에서 나타난 영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시창영역(39%)이 가장 높고, 가창영역(22%), 감상영역(19%), 기악영역(5%), 음악이론영역(10%), 기악과 노래(5%)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가창곡과 가사가 있는 시창곡이 전체의 61%이상 차지하고 있을 만큼 가창을 위한 시창 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시창단원마다 창작 활동이 포함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10> 전체 악곡의 영역별 비중

영역 학년	가창	시창	감상	기악	음악이론	기악과 노래	계(%)
1	5(25)	8(40)	3(15)	1(5)	2(10)	1(5)	20(100)
2	5(25)	8(40)	3(15)	1(5)	2(10)	1(5)	20(100)
3	4(21)	7(37)	4(21)	1(5)	2(11)	1(5)	19(100)
4	4(21)	7(37)	4(21)	1(5)	2(11)	1(5)	19(100)
5	3(17)	7(39)	4(22)	1(6)	2(11)	1(6)	18(100)
계	21(22)	37(39)	18(19)	5(5)	10(10)	5(5)	96(100)

남한 교과서와 비교해 보면 남한은 한 제재곡을 배울 때 가창·기악·감상·창작 영역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북한 교과서는 한 가지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다. 또한 남한은 국악의 비중이 많은데 비해 북한은 전통적인 악곡(국악)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전체악곡이 북한 작곡가들에게 의해 작곡된 창작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통(국악)이라는 해석이 남한과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해본다. 또한 외국의 악곡이 한곡도 소개되지 않았는데 이는 음악교육이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가르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가) 가창

가창은 언어의 매개가 되므로 북한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교육을 위한 정치사상교화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가창곡은 누구나 부르기 쉽고 금방 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선율의 반복 사용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상투적인 가사 내용에 맞추어 음악적 정점은 언제나 김일성이나 그를 지칭하는 곳에다 두고 있다. 또한 단음계에 바탕을 둔 노래여도 김일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에는 밝은 장음계로 변화되고 있다.⁷⁴⁾ 가요란 가사와 선율이 하나로 결합된 가장 간결한 성악작품 형식을 말한다. 일명 노래라고도 한다. 북한의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가요의 구분형식은 송가, 혁명가요, 행진가요, 서정가요, 당·정책해설가요, 민요⁷⁵⁾등으로 나뉜다. 앞서 교과서에 소개된 글의 분류기준에 따라 송가, 혁명가요, 행진가요, 서정가요, 당·정책해설가요, 민요로 분류해 가창 부분을 분석하였다.

74) 권오성(2001). 전계서. pp.93~94.

75) 김미빈 외(2002). 전계서. p.4.

(1) 송가

송가란 수령과 당·국가를 높이 찬양한 노래를 말하며 김부자의 혁명업적과 위대성 그리고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한 작품들이 속한다. 교과서에 수록된 대표곡으로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의 노래>, <조선의 별>, <애국가>, <로동당은 우리의 향도자> 등을 들 수 있다. 송가는 가창곡 중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악보 1> 고등중학교 1학년 제 1과

제 1 과. 김일성장군의 노래

보통속도로 (Moderato) 리 찬 작사
김원균 작곡

1. 장 백-산 줄기 줄기 피어 린자 옥

압-록 강 굽이 굽이 피어 린자-옥

(2) 혁명가요

혁명가요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노래를 말한다. 혁명가요의 기본내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혁명적 음악예술의 사명과 역할, 창작원칙과 그 실천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문예리론 이다.⁷⁶⁾ 대표곡으로 불후의 고전적 명작 <반일전가>, <아동단가>, <소년애국가> 등을 들 수 있다.

(3) 행진가요

행진가요란 씩씩하고 박력 있으며 전진적 충만한 노래를 말한다. 대표곡으로 교과서에 수록되어있지 않지만 <승리의 5월>, <충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 <자력갱생행진곡> 등을 들 수 있다.

(4) 서정가요

서정가요란 아름답고 풍만한 정서, 부드러운 선율과 따뜻하고 다정한 울림을 주는 노래를 말한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풍년이든 별판이나 웅장한 건물, 또는 대규모 공장을 노래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송가나 당·정책 가요라고 할 수 있다. 가사가 대부분 김일성의 은덕으로 풍년이 들었거나 당의 올바른 정책으로 공장이 세워졌다고 선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⁷⁷⁾ 대표곡으로는 가요 <세상에 부림 없어라>,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등을 들 수 있다.

76) 한상우(1989). 전계서. p.69.

77) 정해돈(2001). 남·북한 중등 음악교과서 비교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47.

(5) 당·정책해설가요

당·정책해설가요는 송가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요로 당을 찬양하거나 당의 정책을 지지, 선전하는 내용이 많으며 공산체제의 선전내용도 많이 포함되어있다. 당 정책가요의 곡조는 송가와 비슷하며 비교적 느리고 장중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⁷⁸⁾ 수록곡으로는 <나의 조국 어머니품아>, <당을 따라 우리도 가요> 가 수록되어있다.

(6) 민요

민요는 원래 역사적 과정에 근로 인민들 속에서 창조되고 불리워온 노래이다. 그러나 작곡가들이 만든 가요들 중 오랜세월이 흐른뒤에도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는 노래도 민요로 된다. <노들강변>, <그네뛰는 처녀> 등 많은 노래들이 작곡가가 있지만 민요로 된다. 북한 역시 민요를 민족음악의 중요한 뿌리로 여기며 민요를 계승하고 발전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김정일 음악예술론」에서도 민요를 전통적인 민족음악의 기본이며 민족음악의 정수라고 표현하고 있다.

음악에서 전통적인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하여야한다. 전통적인 민족음악을 장려하여야 음악예술에서 주체를 세울 수 있다. 전통적인 민족음악에서 기본은 민요이다. 민요는 민족음악의 정수이며 민족음악의 우수한 특징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 있다. 민요는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 정서와 생활감정에 맞는 참다운 인민의 노래이다.⁷⁹⁾

그러나 위의 인용과는 대조적으로 북한 교과서의 많은 제재곡 중 민요는 <홀라리> 한곡만 제시되어있다. <홀라리>는 북청지방의 대표적인 민요로

78) 정해돈(2001). 상계서. p.46.

79) 김정일(1991). 전계서. pp.25~26.

알려져 있으나 북한 교과서에는 시창영역에 포함되어있어서 따로 민요를 다루는 가창영역은 찾아볼 수 없다.

<표 11>가창영역 분류 수록 횟수

형식	수록횟수
송가	10
혁명가요	3
행진가요	2
서정가요	2
당정책가요	3
민요	1

위의 <표 11> 와 같이 김부자 찬양에 관한 노래인 송가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있으며 모든 교과서 제1과는 항상 송가로 시작된다.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으로는 1학년은 주로 4/4박자, 도대도(C장조)로 이루어져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양한 박자, 조성이 나오는것을 볼 수 있으며 가사의 내용은 송가가 가장 많은 만큼 김부자 찬양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다.

(나) 시창

시창은 악보를 보고 그 가락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미지의 곡을 악기나 교사 등의 도움 없이 계이름이나 음이름으로 읽음으로써 그 리듬과 음정을 파악하는 것으로 정의된다.⁸⁰⁾ 따라서 일반적인 시창곡에는 가사가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시창은 남한과 다르다. 시창곡에 가사가 있어

80) 세광음악(1987). 표준음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p.563.

사실상 가창영역과 다르지 않지만 전체 영역중 시창의 비중이 가장 높아 따로 영역 분류를 하였다. 따라서 순수시창과 가사가 포함된 시창도 가창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분류하였다.

<악보 2>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1학년 제 2과

제 2 과. 《도》대조시창(1, 2)

《도》대조음계

음계	도	레	미	화	솔	라	씨	도	T
분자	C	D	E	F	G	A	H	C	
읽기	체	데	에	에프	게	아	하	체	
계단	I	II	III	IV	V	VI	VII	I	

[음정런습]

1 보통속도로(Moderato)

2 보통속도로(Moderato)

리듬만들기 $\frac{2}{4}$ J J | J J | J J ? | ? J ||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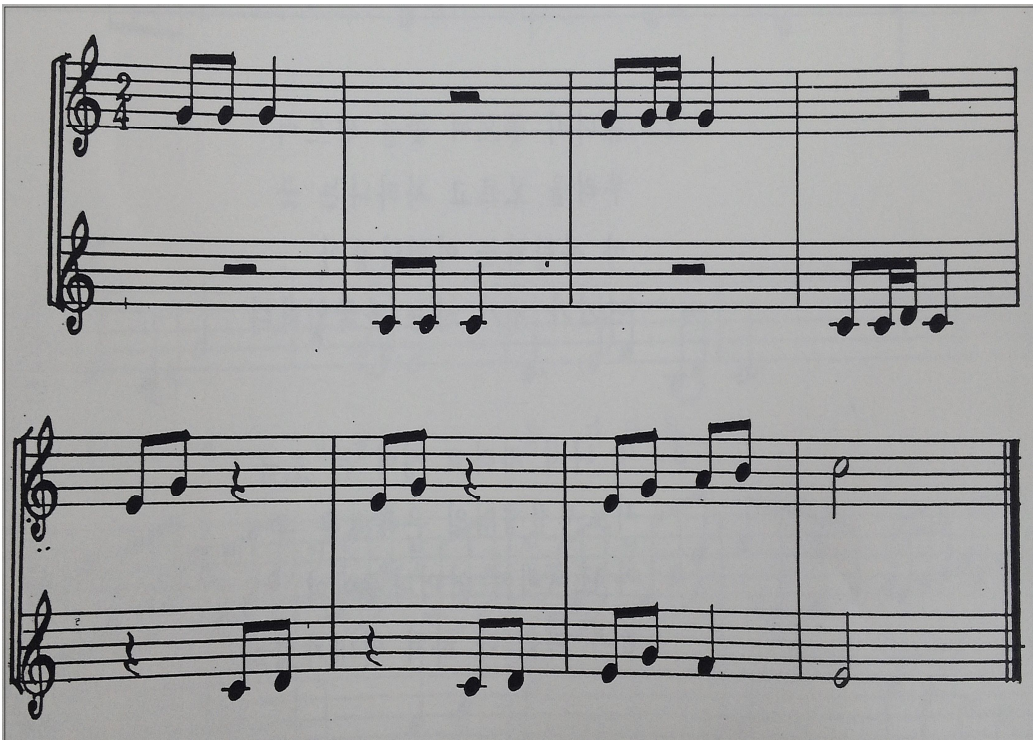
남한에서는 시창교육이 제대로 학습되어지고 있지 않다. 북한의 음악교과서에는 <악보 2>에서 알 수 있듯 시창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어있다. 매번 단원의 처음에는 [음정런습] 을 시작으로 기초연습을 한 후 연습곡이 2곡씩 제시되며 이에 따른 창작활동과 과제가 제시되어있다. 이는 가창을 위한 시

창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게 교육되어지는지 알 수 있다. 교과서에 나타난 시창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문답식 시창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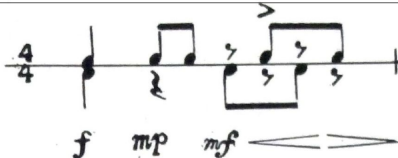
문답식을 활용하여 시창교육이 제시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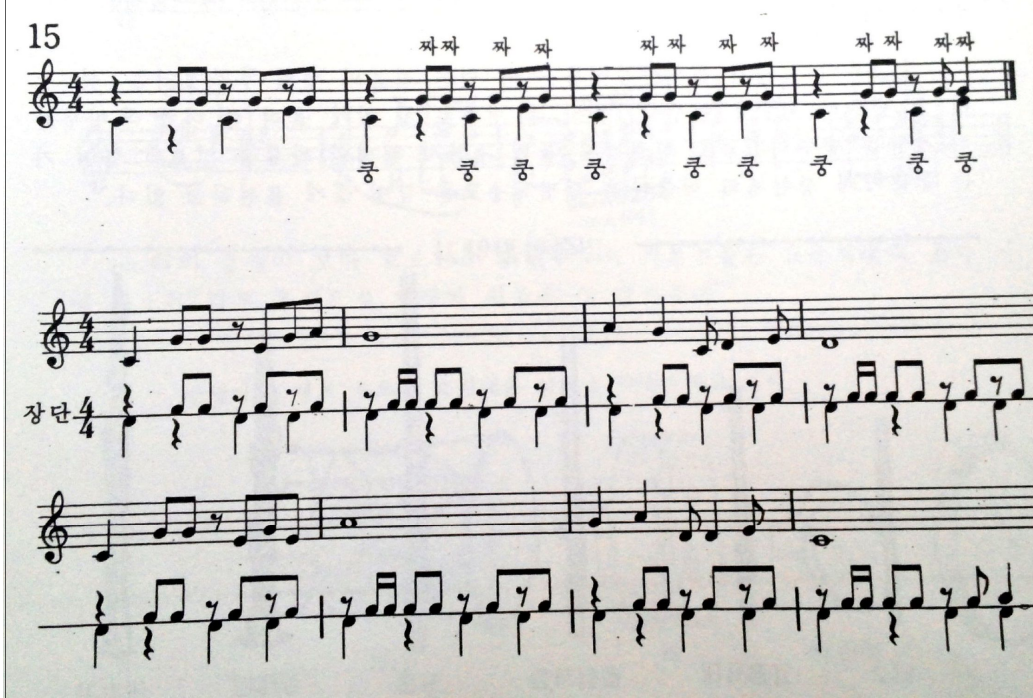
<악보 3> 고등중학교 1학년 제 17과



(2) 장단을 이용한 시창교육

<악보 4>고등중학교 1학년 제 19과

안명장단 $\frac{4}{4}$ 

15 

남한은 보통 민요나 시조 같은 국악 가창활동에 장단을 함께 가르치지만 북한은 서양음악 이론에서 사용하는 시창을 가르치며 장구 연주법을 병행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국악곡은 국악기로 반주하고, 서양곡은 서양악기로 반주하며 표기법에 있어서도 정간보를 활용해 학습하여 국악과 서양음악을 이

분화 하는 반면, 북한은 이들을 배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장구를 가장활동과 병행하여 지도하는 방법적 측면에서는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3) 화음체득을 위한 시창교육

단선율 뿐 아니라 2성부를 통해 자연스러운 화음체득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있다.

<악보 5> 고등중학교 5학년 제 6과

6
느리게 (Lento)

1조
2조
3조

(아름다운 내 나라)
(아름다운 내 나라)

위의 특징들을 보면 알 수 있듯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창학습이 제시되어있다. 음정의 도약(2도부터 순차진행), 리듬변화(4분음표, 붓점음표, 16분음표, 셋잇단음표)등 기본적인 연습을 한 후 장단과 병행 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있으며 시창연습 외에도 박자짓기, 셈여림, 장단, 기초이론을 함께

병행하도록 통합 구성해놓은 것이 특징이다.

(다) 감상

감상곡은 성악곡이 4곡, 기악곡이 11곡이며 기악과 성악이 혼합된 곡은 2곡 총 17곡으로 기악과 가창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이는 연주형태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연주형태는 독주, 중주, 관현악, 협주곡, 경음악⁸¹⁾으로 가창의 연주형태는 중창, 합창으로 나뉘며 그 외 혼합곡은 관현악과 합창, 독병창으로 나눌 수 있다. 분류는 다음의 <표 12> 와 같다.

<표 12> 연주형태에 따른 감상영역 분류⁸²⁾

구분	연주형태	수록 횟수
가창	중창	1
	합창	3
기악	독주	4
	중주	3
	관현악	1
	협주곡	1
	경음악	2
가창&기악	관현악과 합창	1
	독병창	1

81) 경음악이란 비교적 적은 인원들로 구성된 연주가들에 의하여 연주되는 경쾌하고 락천적인 음악을 말한다. 경음악에 구성되는 악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보통 플류트, 클라리넷, 색소폰, 트럼페트, 트롬본, 손풍금, 기타, 타악기,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바스, 전기종합악기, 피아노 등으로 되어있다.(출처:북한 고등중학교 3학년음악교과서 p.41.)

82) 배인교(2008). “북한 음악의 유형분류와 체계연구”. 에 의해 분류함.

가창을 중시하는 북한 음악교과서의 특성상 감상 영역에도 가사가 있는 가창곡이 빠지지 않는데 성악곡에 나오는 가사 대부분은 김부자 찬양, 조국 찬양에 관한 내용이다. 가사 없는 기악곡이더라도 곡에 대한 설명, 작곡가의 의도를 자세히 설명해놓았으며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 <봄맞이> 이 2곡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념적인 성격을 띠는 곡들이다.

감상 형태에 관한 부연설명(선율의 변화, 악곡특징, 악기구성 등) 이 자세히 설명되어있으며 이러한 곡들은 모두 북한 작곡가들에 의해 창작된 곡들이고 전통음악이나 외국곡은 한곡도 찾아 볼 수 없다. 음악감상은 음악을 미적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일과 듣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음악미를 일으키게 하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⁸³⁾ 그리고 항상 학생들로 하여금 수동적으로만 느끼게 하지 말고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감상교육의 역할인 것이다. 이처럼 미의 세계를 감지하고 풍부한 교양을 쌓아 사회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인간성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중 하나인 것이다.⁸⁴⁾ 이처럼 감상교육의 중요함에 불구하고 음악을 주체 사상을 교육하는 수단 또는 정치사상 교화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듯 포괄적 음악교육을 지향하는 오늘의 음악사조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라) 기악

기악곡은 한 학년에 한 단원씩 소개되고 있으며 학년별로 배우게 될 악기는 1학년은 가야금, 2학년은 손풍금(아코디언), 3학년은 단소, 4학년은 기타, 5학년 소해금이다. 제시된 기악활동은 연주자세, 구조, 명칭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있고 기초연습곡, 기악 연습곡이 1곡씩 짧게 제시되어있다. 뒷쪽의 보

83) 한상우(1989). 전게서. pp.87~88.

84) 정해돈(2001). 전게서. p.63.

충교재에서 악기 연습곡이 제시되어 있어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제 9 과. 단 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민족악기가운데서도 죽관악기의 음색은 독특하기때문에 양악기로는 흉내도 내지 못합니다.》

단소는 그 소리가 매우 맑고 아름다우며 우아하고 치량한 민족적색채를 강하게 나타내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민족죽관악기의 하나이다.

민족악기를 개량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단소는 훌륭히 개량완성되어 풍부한 표현력을 가진 독주악기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중주, 합주, 관현악 등에 참가하여 주로 선율을 연주한다.

단소는 《세^b》조악기로서 기보보다 소7도 높은 소리가 난다.

기보

선 자세

단소의 생김새와 손가락번호

단소의 생김새

원손

원손

손가락번호

원손

오른손

<그림 18 >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3학년 제 9과

이처럼 제한된 기악 경험으로 기악 앙상블의 경험이나 다양한 음색 경험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기악음악보다는 노래를 중시한다는 북한의 ‘주체적 문예이론’에 나타난 방침에 의한 것으로 악기사용의 형태를

단순화 시켜 가사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⁸⁵⁾

<표 13> 학년별 기악영역

학 년	차 레	제 목	악기편성 및 빠르기	비 고
1	제9과	가야금	가야금 연주자세, 구조와 조류, 연주법	우특에 대한설명
2	제15과	손퐁금	손퐁금 형태, 연주자세 연주법	연습곡
3	제9과	단소	단소 생김새 손가락번호, 연주법	박연에 대해 설명
4	제13과	기타	기타 구조 명칭, 연주자세	<당중앙의 불빛> <어데까지왔니>
5	제16과	소해금	소해금 구조와 조류, 연주자세, 활쓰기 및 손가락질기	<지도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마) 기악과 노래

교과서에 ‘기악과 노래’ 라고 명시되어있어 북한 음악교과서의 특징으로 보고 가창영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한 학년에 한 단원씩 제시되어있고 전 학년 모두 노래와 악기가 같이 연주하도록 합주 구성으로 되어있다. 악기편성은 노래, 하모니카, 소고, 대고, 퐁금, 손퐁금, 장고, 기타 7가지로만 이루어져있다. 노래의 내용은 김부자찬양, 조국찬양 외에도 풍경에 관한 노래인 <명승가> 란 곡도 수록되어있다.

85) 정해돈(2001). 상계서. p.60.

제10과. 장군님의 군대가 되자

(기악과 노래)

씩씩하고 기백이 넘치게 (Con vigore energia) 리정술 작사, 안정호 작곡

노래

1. 정일 봉이 솟은 땅에 태어난 청춘들 아 사랑

손풍금

기타
소고
대고

풍금

백-

하 는 내 조국 위 해 력- 명 의 군 복 임 자

A D A7 D

<표 14> 학년별 기악과 노래 영역

학 년	차 레	제 목	악기편성	박 자	조 성	내 용
1	제 11과	대동강	노래, 하모니카, 소고, 대고, 풍금	4/4	C	조국찬양
2	제 12과	불후의 고전적명작 ⁸⁶⁾ <반일전가>	노래, 하모니카, 소고, 대고, 풍금	6/8	C	일제타도
3	제 5과	불후의 고전적 명작<꽃피는 처녀>	노래, 손풍금, 소고, 대고, 풍금	9/8	G	꽃피는 처녀에 관한 얘기
4	제 5과	명승가	노래, 단소, 장고, 풍금,	3/4	F	풍경
5	제 10과	장군님의 군대가 되자	노래, 손풍금, 기타, 소고, 대고, 풍금	4/4	D	김정일 찬양

(바) 음악이론

음악이론은 각 학년마다 2단원씩 나오며 기초적인 음악이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제재곡에 맞는 이론을 부연 설명하는 정도로 표기되어 있지만 북한의 음악교과서에는 한 단원을 차지할 만큼 중요시 생각한다 볼 수 있겠다. 이론의 내용으로는 기초가 되는 악전부터 시작해 음정, 화음, 조성순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단계적으로 학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론에 대한 설명뿐 그에 따른 학습활동영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론이 효과적으로 학습되어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다. <표 15> 는 학년별 이론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86) 불후의 고전적 명작 :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김일성 찬양에 가장 미학적으로 잘 묘사한 내용을 표현한 곡을 당에서 추천하여 일컬어지는 말이다. 가창곡으로는<반일전가>, <고국의품>, <조선아 너를 빛내자>가곡이론 <꽃피는 처녀>교향곡으로 <피바다>가 있다.

<표 15> 학년별 음악이론 영역

학년	차레	제목	내용
1	제4과	음렬과 기본계단, 전음과 반음, 변음기호, 오선과 음고기호	온음, 반음관계, 오선보설명
	제14과	소리표와 쉼표, 박자와 리듬	음표, 쉼표, 박자, 리듬 설명
2	제3과	음정	음정, 전위
	제10과	화음	3,7,9화음, 전위, 협화, 불협화음정
3	제2과	조식과 조성	조식, 조성
	제18과	우리나라 민요조식	음계, 속도기호, 변속기호
4	제9과	화음표기	주3화음, 부3화음, 주7화음, 부7화음
	제18과	선율음에 화음맞추기	조식-조성, 반주리듬
5	제5과	선율, I 부분형식	선율, 악절 설명
	제9과	2. 부분형식	단순2부분형식, 반복하지않는 단순2부분형식, 복합2부분형식 설명

단원에서 제시된 이론 외에도 다른 단원에서 곡의 형식, 악기설명, 작곡가 등 짧게 부연설명 되어 지기도 한다. <표 16> 과 같이 이론 단원 외에 부연설명으로 소개되어지는 이론파트를 음악가, 장단, 형식, 이론, 악기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표 16> 이론단원 외 이론영역

학년	작곡가/음악가	장단	형식	기초이론	악기(사진만제시)
1	· 김 혁 · 려 옥 · 공 후인 · 홍란파 · 우륵	조선장단	· 중창 · 방창 ⁸⁷⁾ · 가요	-	· 지탄악기 (가야금, 유희금, 기타, 하프) · 타악기

					(장고, 북, 팽과리, 징) · 민족목관악기 (단소, 고음저대, 중음저대, 저대, 장새납, 대피리)
2	· 김정일근 · 황학근	중모리 장단	· 합창과 그종류 ⁸⁸⁾	· 음역과 음구 · 모음발음 · 민요(아이랑, 도라지, 풍년가) · 전주,간주,후주	· 장고 · 타악기일식(드람셋트) · 금관악기 (트럼페트, 호른, 트롬본, 코르네트, 알토, 테노르, 바리톤, 바스) · 목관악기 (플류트, 오보에, 클라리네트, 색스폰, 화고트)
3	· 안기영 · 박연 · 슈벨트	반살풀이 장단	· 무반주합 창 · 경음악 · 명곡	· 평행조,동명조,전 조 · 총보	· 현악기설명
4	· 리면상 · 모차르트	굿거리 장단 반굿거리 장단	· 배합관현 악 ⁸⁹⁾ · 절가 · 혁명가극 · 방창곡 · 서곡 · 중곡	· 발성법 · 주선률과 대위선률 · 이조 · 변성기 · 허밍 · 롱음(떨림음) · 장식음	· 바이올린설명
5	· 차이콥스끼 · 윤이상	양산도 장단	· 협주곡 · 국가	· 음악작품의 구성부분 (제시,발전,결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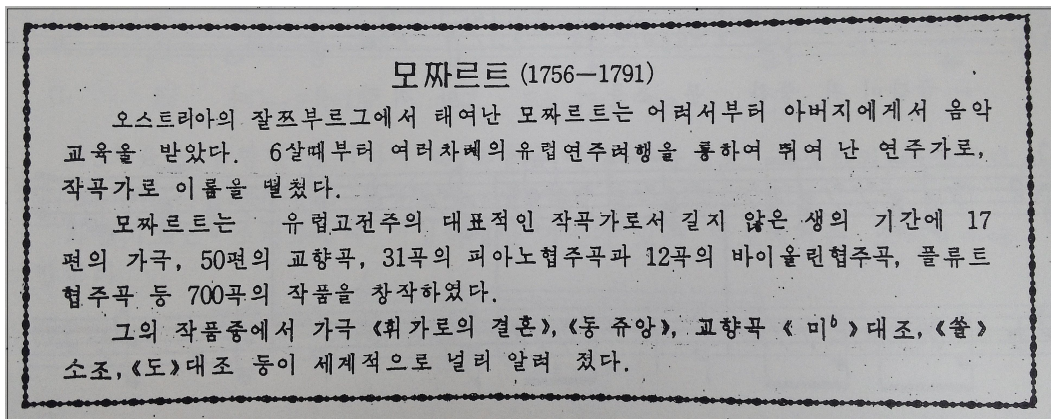
<표 16>에서 알 수 있듯 단위 외에 부연설명되는 부분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이론 설명은 주로 가창과 관련된 이론들

87) 방창이란 무대 밖에서 불리워지면서 극의 세계를 그려 내는 노래이다. 방창은 완전히 우리식이며 가극혁명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다. 방창은 크게 남성방창, 여성방창, 혼성 방창으로 나누며 그 연주형식에서는 독창과 2~3중창, 대중창, 소방창과 대방창, 무가사방창이 있다. (출처: 북한 음악교과서 고등중학교 1학년 p.33.)

88) 합창의 기본형태는 4개의 성부 즉 여성고음, 여성저음, 남성고음, 남성저음으로 구성된 혼성 합창이다. 합창에서 기악반주가 없는 것을 무반주 합창이라고 한다. (출처:북한 음악교과서 고등중학교 2학년 p.17.)

89) 민족악기를 기본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양악기를 독창적으로 결합시킨 주체적관현악을 말한다. 배합관현악에는 민족악기에 양악기를 전면적으로 배합한 전면배합관현악과 양악관현악에 민족목관악기를 배합한 부분 배합관현악이 있다. (출처:북한 음악교과서 고등중학교 4학년 p.27.)

이 많다. 악기의 설명은 악기그림과 짧은 설명뿐이다. 악기사진도 실사진이 아닌 그림으로 되어있어 악기를 쉽게 접할 수 없는 북한에서는 단지 교과서 속의 그림일 뿐이다. 외국 작곡가에 대한 설명은 슈베르트, 모차르트, 차이콥스끼 3명뿐이고 짧게 설명되어 있다. <그림 19>은 모차르트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 19>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4학년 p.24

전세계적으로 음악이론은 공통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용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부록 1> 남북한 음악용어차이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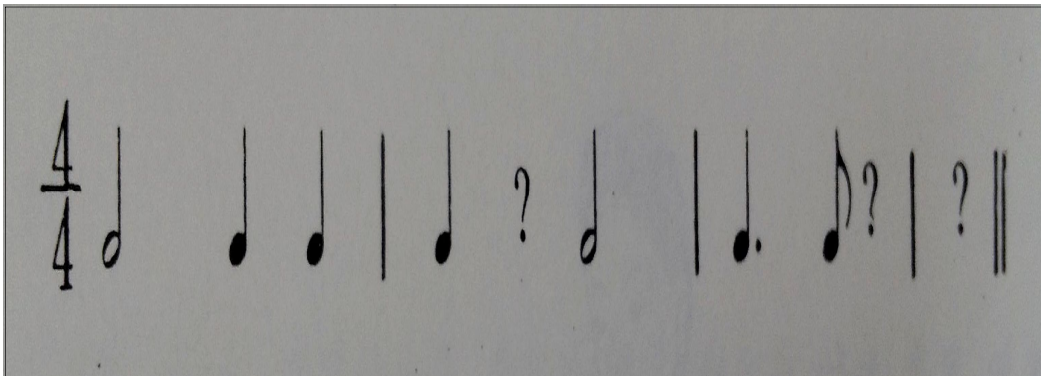
(사) 창작

각 학년의 시창 단원 안에 창작영역이 포함되어있다. 대부분 악보가 제시되고 지시된 사항에 맞게 학습되어지도록 제시된다. 각 학년별 창작영역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학년 창작영역 (리듬 만들기)

1학년 창작영역은 리듬 만들기 활동으로 주로 4마디 악보가 주어지며 빈 박자, 마디 채워넣기, 문답식으로 창작하기, 동기 리듬 발전시켜 창작하기, 종지 리듬 만들기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게하며 박자도 체계적으로 리듬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있다.

<악보 7> 고등중학교 1학년 제 8과



(2) 2학년 창작영역 (선율 만들기)

2학년 창작영역은 선율 만들기 활동으로 제시된 악보에 맞추어 선율 창작 (음, 리듬)을 하도록 제시한다. 이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문답형식으로 창작하도록 유도되었다.

<악보 8> 고등중학교 2학년 제 9과

창 작 ?

선 른 문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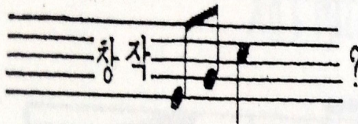
○ 제시된 선물을 여러번 시창하면서 어떤 선물로 대답하겠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 첫번째 오선의 마지막답에서는 선물이 이어 지는감을 주어야 하며 두번째 오선의 마지막답에서는 선물이 끝나는감을 주어야 합니다.

(3) 3학년 창작영역 (동기에 의한 한 개 악단의 선물 창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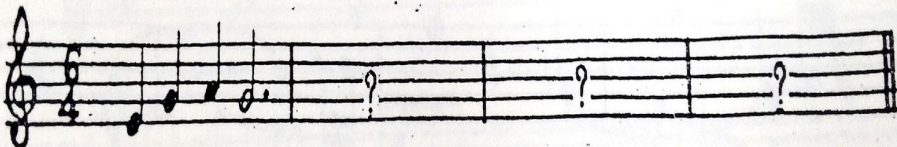
3학년은 제시된 악보를 보고 동기를 발전시켜 선물을 창작하도록 하며, 3학년 제 11과에서는 ‘둘째 소절에서는 리듬을 첫째소절과 통일시키고 마지막 소절은 주음에서 긴 리듬으로 끝내주는 것이 좋다.’ 라고 자세히 학습내용을 제시해준다.

<악보 9> 고등중학교 3학년 제 11과



④ 제시된 동기를 발전시켜 선율을 만들어 보시오.

희망을 담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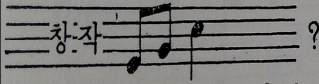


선율의 둘째, 셋째 소절에서는 리듬을 첫째 소절과 통일시키고 마지막 소절은 주음에서 긴 리듬으로 끝내주는 것이 좋다.

(4) 4학년 창작영역 (가사에 의한 선율 창작)

4학년의 창작영역은 가사에 의한 선율창작이다. 주어진 한 문장의 가사를 시작으로 한 소절의 가사까지 제시되며 가사의 억양, 운율 등을 생각하며 창작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악보 10> 고등중학교 4학년 제 11과



창작 ? 가사에 의한 선률창작 (3)

가사 풍년벌의 갈매기

아침안개 피여 나는 벼바다우에
동쪽 넘어 흰 갈매기 날아 들어요
간식지농사가 정말 좋다고
끼룩끼룩 노래하며 찾아 오지요

첫 시작선율을 만든 다음 그의 특징적인 음조적투와 선률적인 리듬을 반복 또는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가사 첫행의 선율을 만들어 보시오.

(5) 5학년 창작영역(선률의 전개)

5학년 창작은 선률의 전개로 기-승-전-결 형태로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 형식, 특징 등을 생각하며 창작 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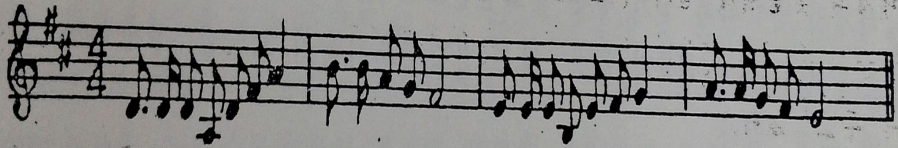
창작 ?

선물의 전개 (1)

선물은 자기의 고유한 문법과 발전법칙에 맞게 전개되어야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으며 유순하고 아름다운 선물로 될 수 있다.

선물은 생활자체의 흐름에 맞는 발전단계 즉 주제의 제시(기), 제시된 주제의 계승 및 공고화(승), 선물의 적극적인 발전(전), 선물의 종결(결) 단계를 가진다. 이러한 선물발전단계는 선물의 시작으로 부터 줄기가 뻗고 열매가 맺는 선물형상과정을 단계별로 특징 짓는다.

아래에 제시된 선물을 가지고 《기》, 《승》, 《전》, 《결》의 순차적 단계를 생각하면서 4개의 악단을 가진 선물을 창작하시오.



제시된 첫 악단은 음악주제의 기본내용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둘째 악단은 처음에 제시된 음악적내용을 계승 및 공고화하는 단계, 셋째 악단은 선물의 적극적인 발전단계, 넷째 악단은 음악형상의 종결단계로 되게 하여야 한다.

남한에서도 창작영역은 학생들에게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파트이다. 그러나 북한의 창작영역을 살펴보면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리듬창작, 선율, 동기, 가사, 전개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수법을 살펴볼 수 있다. 예로는 단순한 리듬 만들기로 시작해 단순한 선율창작으로 더 나아가 작은악절에서 큰악절로 확대 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또한 문

답식활동을 통해 흥미유발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학습과정은 좋은 학습유형이지만 예술, 즉 창작이란 예술가 자신에게 맡겨져야 하며 어떤 체제나 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도해서는 안되지만 북한의 사회주의 현 체제에서는 예술이라 말하는 소재에는 항상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상화를 견고히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귀착성을 지닌, 오도되어진 음악 창작활동을 통해 북한 학생의 정신세계의 파괴를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⁹⁰⁾

(아) 가사 · 곡 내용 분석

음악교과서 수록곡 중 북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정치사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음악을 분석하기 위해 가창·기악·시창·감상 영역에 나온 곡을 중심으로 가사와 곡의 주제를 분석해 보았다. 감상곡에 가사가 없는 곡이라도 작곡가의 의도를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가사의 내용은 각 학년의 제 1과인 <김일성 장군의 노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노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에서 볼 수 있듯 교과서의 첫 단락에서 김부자의 찬양이 이루어지며, 그 외 김정숙찬양, 사회주의 찬양, 충성심, 적개심 고취, 기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기타영역은 주로 동요나, 자연을 묘사한 노래들이다. 또한 통일에 관한 내용은 5학년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는 점도 알 수 있다.

90) 한상우(1989). 전계서. pp.87~88.

<표 17>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가사 내용 분석

학년	백두산 3대장군(김일성,김 정일,김정숙)	당·사회 주의 찬양	충성심 적개심 고취	통일	기타	합계
1학년	8(42)	2(11)	4(21)	-	5(26)	19(100)
2학년	8(38)	4(19)	2(10)	-	7(33)	21(100)
3학년	10(48)	2(10)	4(19)	-	5(24)	21(100)
4학년	5(24)	5(24)	7(33)	-	4(19)	21(100)
5학년	3(15)	4(20)	5(25)	3(15)	5(25)	20(100)
합계	34(33)	17(17)	22(22)	3(3)	26(25)	102(100)

북한교과서의 가사가 있는 노래 즉, 가창곡, 시창곡, 기악과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음악교육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음악에 있어서 민족성, 사상성, 대중성, 전형성 등이 가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 가창곡의 중심은 선율보다는 가사에 중요함이 있다고 생각한다.⁹¹⁾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교육을 위한 정치사상 교화의 기능을 가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곡조보다는 가사를 중요시하는 점을 알 수 있다.

91) 한상우(1989). 전계서. p.14.

2. 인터뷰 결과 분석

가. 학교 전반에 관한 내용

학교의 규모나 시스템은 남한과 비슷하게 구성되어있으나 반의 수가 2~3학급으로 적은편이다. 공통점으로는 포상제도, 학급임원, 교복착용이 있고 차이점으로는 담임이 매 학년 마다 바뀌는 남한과 달리 입학할 하면 졸업때 까지 한명의 담임이 전담한다는 점이다.

A씨 : 제가 다닌 학교는 남녀공학으로 한 학년에 한 학급으로 구성되어 보통 한반에 30명 정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도시는 보통 한 학년에 2~3학급으로 있고 ... 반장, 부반장도 있었고...

B씨 : 저는 예술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한반에 38~40명 정도였고 2개반이었어요. 무용이랑 미술이랑 같이 있고 음악반이 있고 북한에선 거의 남녀공학이에요. ... 반위원장이 회장이고 반부위원장이 부회장인데 ... 저는 아코디언해서 예술해서 저는 반부위원장해서 예술담당이었거든요. ... 포상제도 있었죠.

A씨 : 네, 남한은 학년이 바뀔 때 마다 선생님이 바뀌는데 저희는 1학년때 배정받은 선생님이 졸업할때 까지 이어서 합니다. 총 6년간 한분이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A씨 : 교복이 필수였습니다. ...남한처럼 학교마다 다른 디자인이 아니라 거의 비슷합니다.대량 주문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비슷합니다.겨울에는 검정계열 여름에는 흰티셔츠에 검정색 치마.

북한에서 음악시간은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이며 남한과 비슷하게 주요과목에 비해 시간이 적은편이며 주로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성에 관한 과목이 중요시된다.

A씨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학교수업이 있고, 음악수업은 일주일에 1번 이상있던걸로 기억 합니다. 그 한번이 1시간정도이고 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45분 수업 하고 쉬는 시간이 있고...

B씨 : 음악은 일주일에 2,3번 띄엄띄엄 있었던것 같아요. ...

C씨 : 일주일에 한 두번 했던 것 같습니다. ... 3대 그 김정일, 김정은, 김정숙에 대한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이 가장 많았어요.

나. 음악과목의 교육 환경 및 시설

무상의무교육제도는 수업료만 없을 뿐 교과서, 교복, 학용품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개인이 구입해야하며 교육기자재 파손, 시설낙후, 수업 질 저하 등과 같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음악실의 유무는 학교마다 다르며 음악 감상 등을 위한 매체를 활용한 수업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에 구비되어있는 악기는 학교에 피아노 한 대정도이며 상태도 열악한 상황이다. 대신 아코디언의 보급화로 인해 아코디언은 쉽게 접할 수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되어 누구나 악기를 접하고 사용해 볼 수 있는것이 아니라 환경 및 시설 면에서는 열악한 조건이다.

A씨 : 음악실은 따로 없고 교실에 음악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B씨 : 네 따로 있었어요. 전공실이요. 말하자면 여기 예술학교는 전공실이라고해서 그 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도 그게 있었어요. ... 음악교실도 따로 있었어요.

C씨 : 네 중고등학교는 따로 있어요. 초등학교 때엔 없었어요.

A씨 : 발 풍금은 요즘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아노는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B씨 : 발풍금은 인제 유치원에 있고 피아노 예술학교엔 있어요. 근데 어느 중학교의 경우에는 피아노는 딱 1대가 있을거예요 아마. ... 학교에 있는 악기는 개인악기에요.

C씨 : 발풍금이 예전엔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발풍금 대신에 피아노가 들어오는 학교도 있어요. ... 아코디언하고 기타정도 있었던것 같아요. ... 아코디언은 전기가없어도 소리가 나서 많이 사용했 던 것 같아요.

A씨 : 음향 시스템이 있긴 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시다.

B씨 : 스피커는 없었어요 ... 네 감상수업은 못했죠. 남한은 쉬는 시간에 스피커로 알려 주잖아요 북한은 종으로 쳐요.

다. 음악 교사

북한에서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전문예술대학을 졸업하거나 교원대학 및

사범대학을 졸업한 전문가가 교원이 되며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만 교사를 할 수 있기에 누구나가 교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B씨 : 제가 성악전공해서 전공 선생님은 성악이고, 그냥 일반 음악선생님은 북한에서는 음악이론을 악전 이라고 하거든요 그 악전이랑 시창 청음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 예술학교와 일반 학교의 차이는 아무래도 저희선생님은 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해서 석사과정을 했다거나, 음악을 전공한 선생님들이고 일반학교는 사범대 졸업 해야되요.

C씨 : 그렇죠. 선생님 하려면 사범대나 교원대를 나와야하고 사범대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고 교대는 초등학교, 유치원으로 많이 가요. 교대 나온 사람들은 그나마 수준이 있어요.

북한에서 교권은 좋은 편이다. 처벌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학업에 잘 따라오지 못하면 엄격히 처벌을 행한다.

A씨 : 북한에서 교사 직업은 좋은것 같아요. 저희언니도 초등학교 교사를 북한에서 하고있는데 교사가 되려면 대학도 가야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뒷받침 되어야하고 또 어떤 학교 교사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반을 맡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B씨 : 북한은 너무 썰서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는 때리는게 없잖아요 거기에선 체벌이 있습니다. 소년단지도원이라고 학생부장인테 무섭습니다.

학생들의 분위기는 남한에 비해 비교적 좋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교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농촌일을 하거나 장마당에 나가는 학생들도 많아 출석률이 떨어진다.

A씨 : 남한에 비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한은 체벌이 허용되지 않고 핸드폰 찍어서 올리고 신고하고 이러는데 북한에서도 체벌도 있어서 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반항적이라기 보단 의무교육이라서 학생이 안오면 수업시간에 데리러 오라고 선생님이 시킵니다. ...

B씨 : 남한은 학생들 분위기가 예의 없다고 해야하나? 선생님하고 친구 되려고 하고 그래서 놀랬어요 북한은 그렇지 않아서 ... 근데 학교를 잘 안가요 학생들이 ... 갈필요가 없어요. 거의 김정일 김일성 김정숙 3대 혁명가 이런걸 많이 알려주니까 ...

라. 수업교재 및 내용

북한에서 교과서가 무상지급이지만 개인이 구매해야하며 형편이 어려우면 물려받는다. 따라서 형편에 따라 사용하는 책의 질이 달라진다.

A씨 : 네 전국에 교과서 1개고 출판사고 하나입니다. 교과서는 물려받기도 하고 사기도하고 많이 비싸지 않았던것 같아요.

B씨 : ... 형편이 어려우면 윗 학년이 물려주는거 있고 근데 물려받는거는 너무 너털너털해서 테이프도 붙이고 ...

C씨 : 네. 당에서 내려오니까는 다 똑같죠. 내용도 다 똑같아요. 선생님에 따라 약간은 다르겠죠.

음악시간에 주로 가창과 시창활동을 많이 하며, 고학년이 될수록 음악을 접하는 기회가 적어진다. 주로 배우게 되는 내용은 김일성, 김정일 찬양에 관한 곡이다. 선생님을 따라 부르는 학습형태를 띠며, 수업의 내용은 주로 혁명성을 강조하는 정치적인 내용이다. 기악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적 능력이 되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과외를 통해 배우게 된다.

A씨 : ... 가창수업을 많이 합니다. 같이 악보 보면서 다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음악수업을 거의 안했던 것 같아요. ... 초등학교때 음악을 더 많이 배운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발품급 하면서 책 펼쳐 놓고 악보 보면서 따라했습니다. ... 악기는 개인경험에 따라 다른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소조활동을 해서 많이 접해본 케이스 인 것 같아요.

B씨 : 가창 수업을 하면 발성 먼저하죠 그전에 호흡을 맞추어보고 ... 민요나 양정 같은 가요 같은 걸 배우고 근데 거의 김정일, 김일성 찬양 하는거 배우고 그랬어요. ... 음악시간에는 주로 아까 말한 악전 이론 시창청음, 그리고 노래 부르고 ...

C씨 : 노래죠. 노래위주고 시창을 많이 배웠죠. 청음? 하는 것 박자 이런거? 배운기억이 있습니다. ... 김일성, 김정일 이런 노래입니다. 여기서 여러곡을 배우지 말입니다. ... 악기는 중학교에서 한 것 같은데 배우진 않고 ... 저는 소조활동을 해서 아코디언을 했어요. 아 그런데 그 책을 치고 장단을 친 기억이 납니다. 쿵쾅쿵쾅 이렇게요.

남한에서도 잘알려진 <반월가>, <고향의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란 노래는 북한에서도 불리워지지만 가사, 선율이 다르게 불리워지며 이런
음악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전해내려오는 전래동
요처럼 구전으로 불리워 진다.

C씨 : 네 반월가 고향의봄이 있습니다. 그건 어렸을 때부터 불려온거고 초등학교때 배운것같습니다.

B씨 : 이런건 어릴때부터 티비에 나오거나 그냥 애들이나 어른들도 다 부르고 다 아는곡이에요 근
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건 가사가 다른것 같아요. 민요도 가사나 선율이 다르게 있더
라구요

학교에서 서양음악 및 남한음악에 대해 다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
밖 또는 밀수를 통해 해외음악을 접하며, 공개적으로는 절대 부르지는 못하
다. 남한의 음악은 K-POP 보다는 주로 트로트와 드라마OST를 접하게 된
다.

A씨 : 다른 노래 그런건 없어요. 학교에선 전혀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지만 밖에선 친구들끼리 중
국 노래나 영화노래를 듣거나 따라 부릅니다. ... 저는 남한노래를 늦게 접한편인데 저는 중학교때
부터 들었어요. 처음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그 음악이 바람바람바람, 찰랑찰랑, 인데 이 노래는 보통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돌노래보단 트로트나 영화OST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트로트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B씨 : 전혀 몰라요 그냥 베토벤 운명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 남한 노래는 아이돌 말고 제목 모르고 듣
는 곡도 많고 주로 트로트나 안재욱의 친구, 드라마 노래나 그런거요. ... 중국에서 돈 주고 받아와
요

C씨 : 서양음악은 없어요. 학교에서 말고 밖에서 친구들끼리 많이 들었어요. 춤도 추고 중국음악이
나 영화 나오는 노래 이제는 대중화되었다고 보면 되요.

북한과 남한의 음악적 차이점으로는 선율의 흐름, 느낌이 다르고 발성법이
다르다. 남한의 트로트가 북한의 선율과 비슷해 트로트를 주로 즐겨 듣는다
고 한다. 주로 <바람바람바람>, <찰랑찰랑>, <친구> 천국의계단OST 등이
다.

- A씨 : 멜로디가 많이 다릅니다. 북한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멜로디가 북한음악과 비슷해서 더욱더 좋아합니다. 가사도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게도 하고 발라드, 팝과는 다른 점이 있어 트로트를 좋아합니다. 들었을 때 트로트가 익숙해서 ...
- B씨 : ... 약간 북한만의 그런게 있어요. 코로 걸고 한다고 해야하나? 남한과 발생법이 달라요 ... 북한 고유의 소리가 나서요
- C씨 : 남한노래는 리듬 있다고 해야 하나요? 머 소녀시대 이런 아이돌노래 보면 쿵쿵거리고 역동적인거 같은데 저는 북한에서 트로트 많이 듣고 조용한 곡 같은거를 많이 들었어요 영화 OST 같은거요 그런 느낌이 다른거 같아요.

마. 음악과목 평가

북한도 남한과 같이 평가와 숙제가 이루어진다. 음악숙제는 주로 노래연습이 있고 평가는 주로 서술형으로 중간평가와 기말평가가 있다. 실기평가는 악기의 유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예술학교에서는 발표회처럼 강당에서 한사람씩 실기시험이 이루어진다.

- A씨 : 그렇죠. 악기가 있고 없고 차이. 그래서 악기를 잘 치는 친구는 넌 이 자리야! 이렇게 정해져 있듯 그런게 있었던거 같아요.
- B씨 : 여긴 시험이 객관식이 많은데 거긴 다 서술형이에요. ... 연주회라기보다는 그냥 실기 시험 때 큰 강당에서 다 보는 앞에서 한사람씩 시험 봅니다.
- B씨 : 네 저희 분명 아마 숙제를 내줬는데 어떤 노래를 박자 쳐가지고 오라고 한거같은데 곡 제목은 생각이 안나요.
- C씨 : 숙제검열말입니다. 저희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안해오면 때리고 숙제 있었어요 음악숙제는 노래 외워오고 이런거인데 혁명역사 이런거 써오고 오히려 그 김부자에 관한 숙제가 더 많았어요 달달 외울 정도로 세뇌 됐으니까.

바. 정규수업 외 음악교육활동(발표회, 소조활동, 과외활동)

북한에서는 소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음악선생님 외에 소조활동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으며 주로 이 소조활동을 통해 음악교육이 이루어

어진다. 발표회는 저학년일 때 많이 접하게 되며, 특히 북한의 4대명절 등 주요행사시 착출 되어 공연을 하게된다. 개인과외활동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다.

A씨 : 네 했습니다. 학교에서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노래를 하는 학생들을 뽑아요. 이 학생들은 공부보다 음악을 연습시켜서 특별한날 김정일 생일, 김일성생일 등 4대명절에 공연을 해요. 전교생 앞에서, 마을 주민 앞에서 공연 합니다. 아주 큰 행사입니다. 일주일정도 연습 하고 아코디언, 기타, 탬버린도 연습했습니다. ... 학교에서는 안배우고 개인적으로 배웁니다. 가정교사한테 ... 그렇죠. 악기를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하고 레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B씨 : 합창대회라기보단 그냥 나가서 따로 공연 하는거 그런건 초등학교때 되게 많이 했어요 ... 소조활동은 학교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고 밖에 나가서하면 압록강 가서 돌 같은데 가서 했어요.

C씨 : 노래모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반별로 대회를 했어요. 전교생이 다했어요. 큰 축제였어요 ... 소조활동이 여기서 동아리인데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그 악기배우게 해서 공연하고 그런거인데 우연히 하게 되서 아코디언 연주 많이하고 공연도 하고 했습니다. 학교 소조를 많이 하고싶어 합니다. 그래도 체계적으로 배워 줍니다. 근데 인원이 정해져있어서 집안이 좋아야 됩니다.

사. 졸업 후 진로

남한과 달리 대학진학률이 낮고 생계를 위해 농사일을 하거나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다. 어렸을 때부터 진로를 정한 경우 전문분야대학으로 연계되어 가거나, 높은 직책을 원하는 경우에 주로 진학하게 된다. 이는 경제적으로 뒷받침되는 가정환경이어야만 가능하다.

A씨 : 대학교는 한반에 30명이면 5명 정도 갑니다. 이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고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학생들입니다. 대학 안가면 농사일 짓거나 회사에 취직합니다. 거기는 남한과 달리 취직 하는게 어렵지 않습니다. 남한과 달리 대학 가려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를 더 하고싶은 사람이고 졸업해서 간부직책을 맡으려거나 교사가 되거나 더 높은 직책을 원하려고 가는 겁니다.

B씨 : 저희학교는 예술전문학교다 보니 예술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C씨 : 보통 공부를 하지 않고 장사하거나 농사짓거나 그런 애들이 많아요.

아. 음악교육 외 학교생활

2008년을 시점으로 영어와 컴퓨터가 중요시되어 실시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해외출국이 되지 않아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학습의욕은 낮다.

A씨 : 제가 졸업 할 당시 외국어가 막 도입되어서 제가 다닐적엔 중요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외국어와 컴퓨터수업을 중요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외국어 잘 못 배웠는데 ... 2008년부터 영어가 대중화 되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필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ABC노래, 그 외 음악들을 배웠습니다.

C씨 : 영어를 배웠는데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남한은 이제 영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영어를 사용 할 일도 없고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평양과 지방은 다방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교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평양에서는 돈으로 농촌활동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방법이 없어 학생들은 정규수업시간에 농촌활동에 동원된다.

A씨 : 모든면에서 다 달라요! 수업의 서비스, 질? 시골은 가끔 수업 안 할때도 많고, 농촌동원? 남한에서 말하는 농활입니다. 원래는 수업시간인데 농활로 동원되서 일을 합니다. 평양에선 이런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부자 동상 뒹고 이런거는 방과후나 쉬는날 특별한날에 애국심으로 인해 스스로 하는거고 저희는 당일날 갑자기 수업대신 농촌에 동원됩니다.

C씨 : 거기건 노동 일이 보편화 되어 있어요. 동원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 상관없이 다 나가요. ... 여기서도 잘사는 애들은 돈 주고 빼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소조하는 애들도 그 핑계대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했던경우도 있었어요.

IV. 결 론

본 연구는 북한의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과 세터민 인터뷰를 통하여 북한의 음악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북한의 사상적 바탕을 이해함으로써 남·북간의 이질감을 극복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에 관한 문헌, 자료 등을 참고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형분석 결과, 5종 모두 동일한 판형을 가지고 있으나 지질, 활자의 크기, 인쇄상태가 불량하였다. 또한 삽화와 사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수록되어있는 삽화는 학습의 효과를 주는 시각적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결표지는 컬러로 제작되어있으며 전체적인 외형 분위기가 음악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도록 구성되기보다 딱딱한 느낌을 주는 체제로 구성되어있다.

둘째, 내용분석 결과, 활동영역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북한 음악교과서의 기준에 따라 영역별로 가창·시창·감상·기악·기악과노래·음악이론·창작 7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중 시창영역은 곡의 대부분에 가사있어 사실상 가창영역과 다르지 않지만 전체 영역중 비중이 가장 높아 따로 영역을 분류하였다. 영역별 분석결과, 가사가 있는 가창곡과 시창곡이 61%로 가사중심의 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가창곡은 주로 김부자의 혁명업적, 위대성을 찬양하는 송가가 가장 많다. 따라서 가사·곡 내용도 김부자 찬양, 조국찬양, 충성에 대한 내용이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인해 북한의 곡은 선율보다는 언어의 매개체가 되는 가창곡(가사)에 중요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창을 위한 시창교육도 체계적으로 학습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 방법으로는 문답식교육, 장단을 이용한 교육, 화음 체득을 위한 교육 등 단계별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감상, 기악, 이론영역은 비중이 낮으며 대부분의 곡은 이념적 성격을 띄는 곡들로 외국곡은 배제되고 자국의 창작

곡만이 수록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악기는 개량화 되었고 ‘기악보다 노래를 중시한다’는 주체적 문예이론에 따라 소수의 제한된 악기만을 사용하여 다양한 악기체험을 저해하였다. 이론영역은 이론에 대한 설명뿐 학습활동이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학습되어지기는 어렵다 볼 수 있고 남한의 이론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으나 용어의 차이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창작영역은 시창영역안에 포함되어있으며 단순한 리듬만들기로 시작해 확대되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 붕괴를 우려해 개인의 감정 표현 및 창의성을 억제하도록 제시하였다. 이상 교과서분석을 통해 본 바 음악교육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창의성을 기르고 삶의 질을 높이며 음악을 애호하고 즐기는 태도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인터뷰 결과, 북한의 교육시스템은 남한과 비슷하게 구성되어있으며 입학할 하면 졸업까지 한명의 담임이 전담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교육환경 면에서는 무상의무교육이지만 수업료만 없을 뿐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개인이 구입해야하며 교육기자재 파손, 시설낙후로 인해 악기나 음향시스템이 없어 시설면에서는 열악한 조건이다. 음악수업은 주로 가창과 시창활동 위주로 이루어지며 수업내용은 김부자 찬양에 관한 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전문 예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악수업은 악기보급의 문제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소조활동, 과외활동을 통해 접하게 된다. 음악평가에 있어서는 악기의 유무에 따라 달라 타당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은 정규수업시간에도 농촌활동에 동원되어 학습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학생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농촌일을 하거나 장마당에 나가 출석률이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졸업 후에도 생계전선에 뛰어드는 학생이 많아 대학진학률이 낮다.

이처럼 교과서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서는 음악과 관련된 모든 요소 즉, 교육환경, 학습내용, 학습목표 등 모든 것이 사상성을 가지고 주체사상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분석 결과로 남·북한 상호간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며, 양국 체제의 다름에 따른 이질성과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이라는 양면성을 인지하고 남북이 서로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탐구 하여야한다.

남한은 서양음악과 국악을 이분화해 우리 고유의 전통 계승을 중시하였고, 북한은 양악과 민족음악을 배합해 전통악기의 개량 등으로 더 쉽게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음악적인 관점에만 국한해 볼 때 남·북간 공통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용어부터 표현방법, 형식, 음악철학 등이 다르기에 분단의 현실이 더욱 실감된다. 그러나 남·북한이 함께 고수하고 있는 공통점도 분명 존재함을 찾을 수 있었다. 남·북한 모두 민족적 요소를 중시하고 우리음악(국악)을 가치 있게 여기며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분단국가로 인해 음악교육의 차이점이 드러났으나 남·북한 음악의 뿌리는 같다. 따라서 한 민족이라는 동질성 회복을 위해 음악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각자의 전통을 인정하며 화합 할 때 비로소 같은 음악적 뿌리로부터 남과 북의 다양한 민족음악유산이 탄생하고 계승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제2011-316호 [별책12].
- 권영민(1990).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권영희(2002). **남한과 북한의 교과서 비교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오성·고방자·강영애·백일형·한영숙·이윤정·김현경·송민혜·김지연·최유이·이수연·송은도(2001). **북한음악의 이모저모**. 서울:민속원.
- 김광섭(1996). **(통일을 대비한)북한 바로알기**. 서울:미래문화사.
- 김동규(1990). **북한의 교육학**. 서울:문맥사.
- 김미빈·김승길·조태봉·송광철(2002). **음악(고등중학교 제 1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 김정일(1991). **음악예술론**.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종균·비명진·박동식·정인갑(2002). **음악(고등중학교 제 4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 김현주(2004). **북한음악관련 한국 석·박사학위 논문의 총람 및 내용분석**.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형찬(1977). **북한의 교육**. 서울:을유문화사
- 나현희(2010). **새터민 청소년의 음악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영일(1991). **민족음악의 계승발전**. 평양:문예출판사.
- 노동은(1996). **노동은의 음악상자**. 서울:웅진출판.
- 민경훈·김신영·김용희·방금주·송윤희·양종모·이연경·임미경·장기범·조순이·주대창·현경실(2013).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학지사.
- 박균열(2010). “북한의 학교 음악교육 변천”. **통일전략**. 제10권 제3호. 145~180.

- 박동식·김중호·김중균·정인갑(2002). 음악(고등중학교 제 5학년용). 교육도서
출판사.
- 박명서(2001). 통일시대의 북한학 강의. 서울:돌베개.
- 박찬석(2013). 북한교육연구. 파주:한국학술정보.
- 박형섭(1994). 조선민족악기. 평양:문예출판사.
- 배인교(2010). “북한 음악의 유형분류와 체계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Vol.6 No 63~91.
- 배인교(2012). “북한 고등중학교 민요 교육의 음악적 고찰”. 한국민요학. 제
35집. 8. 61-94.
- 북한연구학회(2006).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서울:경인문화사.
- 서현진(2005).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음악교과서의 통합 방안 연구 : 초등학
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세광음악(1982). 음악대사전. 세광아트.
- 송광철·김미빈·김군일·조태봉(2002). 음악(고등중학교 제 3학년용). 교육도서
출판사.
- 윤금혜(2005). 북한의 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
학원.
- 윤명원(2007). “남북한 음악용어의 비교”. 학생생활연구. vol.-No.5. 120~131
- 이영미(2002).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에 관한 고찰. 목원대학교 교육대
학원.
- 이현주(2006). 북한음악과 주체철학. 서울:민속원.
- 정혜돈(2001). 남북한 중등 음악교과서 비교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
원.
- 정혜경(2009). 북한 음악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혜령(1995). 북한 음악교육의 분석적 고찰 -고등학교 음악을 중심으로. 성

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직속 당력사연구소(1971). **김일성저작선집4**. 조선로동당출판사.

조태봉·송광철·김영심·김미빈(2002). 음악(고등중학교 제 2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최영표·한만길·김홍주(1988).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통일부(2014). **북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한만길(1997).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서울:교육과학사.

한상우(1989). **북한음악의 실상과 허상**. 서울:신원문화사.

한희정(2003). 통일대비 음악교육을 위한 북한음악의 이해:민요와 개량악기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함승영(2007). 북한의 음악교육에 관한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립국악원. <http://www.gugak.go.kr>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ABSTRACT

The Analytical Research on Music Textbooks and Music Education at Secondary Schools in North Korea

Hye Su Lee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ive an understanding of music education in North Korea through analysis of music textbooks for secondary schools in North Korea and interview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lay the foundation for preparing for unification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e North Korean curriculum before the revision in 2012 was reviewed because the revised one has not yet been disclosed; the music textbooks published for the first- to fifth-graders in 2002, which were archived in the Information Center on North Korea, were analyzed in the categories of forms and contents. The forms were analyzed in terms of format, quality of paper, printing type, illustrations and photos, number of pages, and the cover. The contents were analyzed in terms of seven areas—singing, sight-singing, appreciation,

instrumental music, songs, musical theories, and creation—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music textbooks in North Korea, which specify activity areas. The words and themes of the pieces in the areas of singing, instrumental music, sight-singing, and appreciation were principally analyz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music, which aims at teaching political ideas. In pursuit of more empirical research, people who had received music education in North Korea were sampled and interviewed. From th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rawn:

First, the form analysis found that the five types of textbooks had the identical format but were characterized by lower quality of paper, inappropriate printing type, and poor print status. Few illustrations and photos were found and the illustrations are not used as visual materials for learning effects.

Second, the content analysis found that singing and sight-singing with word-based pieces accounted for 61% of all the activity areas and 72% of the words and pieces were concerned with admiration for Kim's family, praise for fatherland, and loyalty, with emphasis put on self-reliance ideology. In North Korean pieces, the importance is placed on songs for singing (words), which mediate language, rather than on melody. So systematic singing education for sight-singing was also found to be provided. The other areas had composition with a functional purpose of enlightenment based on political ideas rather than with that of each activity area. North Korea failed to allow students to develop potential, express their own emotion, become creative, improve quality of life, or appreciate or enjoy music through music education.

Third, the interview found that as for the educational environment, while education in North Korea is free-of-charge and obligatory, individuals need to purchase things necessary for school life and are in poor conditions without instruments or acoustic systems due to damaged teaching materials and aged facilities. A music class is primarily composed of singing and sight-singing activities and most of the pieces are concerned with praise for Kim's family. This is also true for professional art schools. Instrumental music is never taught because of the problem in distributing musical instruments and some students who can afford may get an instrumental music class through small-group 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Music evaluation, which depends on possession of musical instruments, fails to be valid and students are deprived of their right to learn because they are forced to participate in farming activity even during the hours of regular classes. Financial hardship makes them think of it unnecessary to get school education, which is obligatory, and do farming or go to informal market, which leads to low attendance. After graduation, the college entrance rate is low since lots of students try to make a living.

To put the results of textbook analysis and interview together, North Korea used all the elements related to music—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learning contents, and the learning goals—as the means of supporting self-reliance ideology with ideological loyalty.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for both North and South Korea to get a mutual understanding, recognize both sides of heterogeneity related to different systems and homogeneity as the identical nation, and explore

the parts to share and help each other. If both North and South Korea understand differences between them and accept the other's tradition in pursuit of harmony, they will be able to give birth to and succeed to various types of folk music from the identical musical root.

부 록 1

남·북한 음악용어의 비교⁹²⁾

남과 북은 단일 언어를 쓰는 하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칠십여년간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로 인하여 언어의 이질화 현성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러한 언어의 이질화 현상은 음악용어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아래의 표는 3개 항목(악기, 이론, 장단)으로 남·북한의 음악용어를 분류하였다.

<표 1> 남·북한 악기 용어 비교

구분(연주형태)		남한	북한
전통악기	관악기	단소 젓대, 대금 대피리 쇄납, 태평소	단소 저대 대피리 장새납
	현악기	가야금 양금	가야금 양금 옥류금
	타악기	장고, 장구	장고
서양악기	관악기	트럼본 트럼펫 클라리넷 플루트 색스폰 파곳	트럼본 트럼페트 클라리네트 홀트트 삭서폰 화고트
	현악기	바이올린	바이올린
	타악기	큰북 작은북 드럼셋트 심벌즈 탬버린	대고 소고 타악기일식 (드럼셋트) 썸발(피아티) 탐브린
	건반 및 리드	피아노 풍금 아코디언 하모니카 멜로디언	피아노 풍금 손풍금 하모니카 입풍금

92) 윤명원(2007). “남·북한 음악용어의 비교”. *학생생활연구*. vol.-No.5 p.361 재인용.

<표 2> 남·북한 이론 용어 비교⁹³⁾

분류	북한	남한
음계	자연조식 5음조식	온음계 5음음계
관계조	주음 동명조 평행조 지배음 간접 지배음	으뜸음 같은 으뜸음조 나란한조 딸림음 버금딸림음
음자리표	소리높이 중음기호 저음기호 고음기호	음고 가온음자리표 낮은음 자리표 높은음 자리표
마디	소절 마디선 악단 약구/동기(1마디) 중지선 복중선	마디 세로줄 작은악절(4마디) 동기(2마디) 끝세로줄 겹세로줄
박자	단순박자 복합박자 혼합박자 교체박자 약기박자	홀박자 겹박자 혼합박자 변박자 못 갖춘마디
조성	단조 장조	소조 대조
셈여림표	약하게(피아노) 좀 약하게(메조피아노) 좀 강하게(메조포르테) 강하게(포르테) 힘주기(악센트) 점차 강하게(크레센도) 점차 약하게(데크레센도)	여리게(피아노) 조금 여리게(메조피아노) 조금세게(메조포르테) 세게(포르테) 특히 세게(엑센트) 점점 세게(크레센도) 점점여리게(데크레센도)
악상기초	끊기(스타카토) 타이 잇기(레카토,슬라) 올림기호(지에즈) 내림기호(베몰) 제자리기호(베까르)	스타카토 붙임줄(타이) 이음줄(슬러,레가토) 올림줄(샵) 내림표(플랫) 제자리표(내추럴)

93) 이영미(2002).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에 관한 고찰. 목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54~56 재 인용.

음표	이강음(싱꼬파) 세가음소리표 웅근소리표 웅근쉽표 소리표 치레소리 전음 반음	당김음(싱코페이션) 셋잇단음표 온음표 온쉽표 음표 꾸밈음 온음 반음
형식	대창 련결곡형식	메기고받는형식 다악장형식
목소리 갈래	여성고음 여성저음 남성고음 남성저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표 3> 남·북한 장단 용어 비교⁹⁴⁾

북한	남한
편	덕(따)
떨채	더러러(요)
다락	기덕
긴모리 장단	진양조
덩덕궁 장단	덩덕궁이
도드리 장단	도드리
엇모리 장단	엇모리
서정 장단	.
타령 장단	타령
옹헤야 장단(안땅장단)	단모리
살푸리 장단	살푸리 장단
양산도 장단	세마치
짚은모리 장단	자진모리
휘모리 장단	휘모리
중모리 장단	중모리
중중모리	중중모리
굿거리 장단, 풍년가장단	굿거리장단

94) 북한에서는 모든장단을 일컬어 조선장단이라 부른다. 조선장단은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우리 인민들에 의하여 창조되고 다듬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음악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장단에는 박자, 리듬, 속도, 악센트(힘주기)등 여러 가지 음악표현요소들이 결합되어있다. (출처:북한음악교과서 1학년 p.22.)

위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단관련 용어들 중 남북한에서 용어와 의미가 같게 쓰이는 것은 도드리장단, 잣은모리장단, 중모리장단, 타령장단, 휘모리장단, 엇모리장단이며, 남북한 의미는 같으나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굿거리장단(풍년가장단), 긴모리장단, 양산도장단, 옹헤야 장단이다. 또한 서정장단은 북한에서만 사용되어지는걸 알 수 있다. 남·북한의 언어에서 오는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⁵⁾

㉠ 두음법칙의 차이

여성-녀성, 임시-림시, 드디어-드디여, 올바르다-옳바르다, 녀두리- 녍두리

㉡ 북한지역 방언

남새(채소), 마사지다(부서지다), 가잡다(가깝다), 아즈럽다(애처롭다),

㉢ 고유어휘, 대중화된 한자어휘의 문제

뿌리가르기 (분근), 갈라케기(분리채굴), 왼쪽지기(좌익수)

㉣ 남북한 동일 형태의 고유어휘

콜라내기(선별), 혼자말(독백), 찾아보기(색인)

㉤ 외래어표기상 용어의 문제

에스빠냐(에스파냐), 딜렘마(딜레마), 도쿄(도쿄)

위와 같은 차이로 서로 다르게 쓰이는 음악용어로는 위의 표에서와 같이 ‘여독창을’ ‘녀독창’으로 ‘트럼펫’을 ‘트림페트’로 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95) 윤명원(2007). 전계서. pp.345~348.

러한 경우는 철자의 범칙 하원에서 쉽게 극복 될수있으리라 생각된다.⁹⁶⁾ 의미는 같으랏 용어가 다른 경우도있다 이러한 경우 예로는 온음표(온근소리표), 변화표(변음표), 장조(대조), 소조(단조), 음표(소리표), 끝세로줄(종지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서양음악용어의 기호에서 b 플랫(베몰), # 샵 (지예즈) ♮ 내추럴(베까르) 로 남한과 다르게 불어로 읽는 것도 있다.

이런 남북한 용어의 이질화현상에 대한 극복은 남북한의 언어정책과 음악정책을 이해하고 용어들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지는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96) 윤금혜(2005). 북한의 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53.

부 록 2

인터뷰지

가. 인적사항

01) 나이 02) 출생지 03) 남한 정착기간 04) 남·북한에서 음악교육 유무

나. 학교 전반에 관한 내용

- 01) 학교정원은 몇 명입니까?
- 02) 남녀공학입니까?
- 03) 교사의 수와 학교의 규모는 어떠합니까?
- 04) 담임제도는 어떠합니까?
- 05) 학급임원과 포상제도는 어떠합니까?
- 06) 교복착용을 합니까?
- 07) 학교수업 중 음악수업은 주 몇 회입니까?

다. 교육환경 및 시설

- 01) 학교에 음악실이 따로 있습니까?
- 02) 학교에 악기가 구비되어있습니까?
어떤 악기가 있으며, 상태는 어떠한지?
- 03) 학교에 음향시스템이 준비되어있습니까?

라. 음악 교사

- 01) 북한에서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 02) 음악교사의 전공은 무엇인지?
- 03) 북한에서 교사의 교권은 어떠한지?

04) 학생들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마. 수업교재 및 내용

01) 교과서가 전국으로 통일되어있는데 그럼 의무교육이라서 무상지급됩니까?

02) 음악시간에 배운 활동은 주로 무엇이였습니까?

가창활동이면 기억나는 노래가 있습니까?

03) 교과서에 보면 학년마다 배우는 악기다 다르던데 악기를 접해보셨어요?

04) 수업시간에 피아노를 사용해 수업을 했나요?

05) 교과서에 고향의봄 이란 노래가 있던데 학교에서 배웁니까?

06) 서양음악이나 기타 다른 음악들을 배운적이 있나요?

교과서에 설명된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작곡가나 곡들에 대해선요?

07) 남한음악을 어떻게 접했고, 느낌이 어떠하였는지?

08) 본인이 느낄 때 남북한음악이 차이점?

바. 평가

01) 중간, 기말시험이 있습니까?

02) 음악숙제가 따로 있었나요?

03) 악기의 유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까?

사. 정규수업 외 음악활동

01) 학교에서 발표회, 연주회활동이 있었나요?

02) 소조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03) 레슨(과외활동)이 있는지?

아. 진로

01) 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 혹은 취업 그 진로가 어떻게 됩니까?

자. 그 외 학교 생활

01) 남한처럼 외국어를 중요시합니까?

02) 평양과 지방의 차이점은?

03) 농촌동원활동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